

뉴노멀 시대
Smart Old의
스마트한 투자



100세 시대를 위한 미래설계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 시대.

유엔이 지난 2009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100세 삶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지칭합니다.

우리 사회는 2019년 출생아 기준 기대수명이 83년으로 20년 전 보다

8년 가까이 늘었으며,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은퇴 이후 살아갈 자금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100세 시대는 축복인 동시에 사회와 개인이 지혜를 모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신한은행은 은퇴브랜드 『신한미래설계』를 통해 고객님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네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보고서 역시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웠습니다.

3050세대 자산관리 트렌드와 연금투자 전략,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한 라이프스타일까지, 쉽고 재미있게 즐기며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린 '오늘'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고객님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은행장 권옥승

CONTENTS

INTRO 쓸드족의 스마트 투자란 무엇인가? 06

I. 쓸드족의 스마트 투자 / 리서치

| | |
|-----------------------|----|
| 쓸드족은 왜 투자를 하는가? | 11 |
| 달라진 금융환경, 투자에 눈 뜨다 | 16 |
| 쓸드족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20 |
| 쓸드족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24 |
| 쓸드족의 연금투자, 무엇이 다른가? | 28 |

II. 인생 2막 연금 투자 / 재무 부분

| | |
|----------------------------|----|
| # 투자신 선배는 어떻게 '연금부자'가 되었나? | 36 |
| # 대박의 꿈, 텅 빈 계좌로 끝나다 | 50 |
| # 주린이 대리, 투자의 신으로 변신! | 63 |
| # 有돈장수 50년, 투자는 계속된다 | 73 |

III. 시니어 라이프 '뉴노멀' / 비재무 부분

| | |
|--|-----|
| NEW JOB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일을 찾아라 | 84 |
| NET AND ONTACT 온택트로 만나고, 연결하고, 소통하다 | 88 |
| ROBOT AND AI 로봇, AI와 함께 살아가기 | 92 |
| MINIMAL LIFE 금융을 심플하게, 금융 미니멀리즘! | 96 |
| ALONE 싱글 시니어 라이프를 행복하게! | 100 |

* **쓸드족** : '쓸드'란 'SMART+OLD'의 줄임말로써 '쓸드족'은 '스마트한 시니어'를 말한다. 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관리한다. 또한 연금 투자를 통한 은퇴설계의 뉴노멀을 제시한다.



뉴노멀 시대에 꿈꾸는 행복한 은퇴

누구에게나 꿈꾸는 은퇴 후 삶이 있다. 어떤 이는 정원이 있는 파란 대문의 집을 꿈꾼다. 어떤 이는 배우자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일주를 소망할 수도 있다. 또 누군가의 꿈은 소박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일상이면 족하다. 또 다른 이는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뉴잡에 도전할 수도 있다. 꿈꾸는 모습은 저마다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시작이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열린 언택트 시대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뉴노멀의 시대를 성큼 앞당겼다. 성공의 방식식도 달라지고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그 거대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은퇴 후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 그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고 새로운 은퇴 설계를 찾아야 한다.

행복한 은퇴는 저절로 맞이하는 게 아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행복한 은퇴는 준비하고 도전한 자의 몫이다. 인생의 뒀안길로 사라지는 쓸쓸한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고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는 행복한 은퇴를 설계해 보자. 오늘을 투자하자. 그 하루하루가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스노우볼이 되어 줄 것이다.

쏟드족의 * 스마트* 투자란 무엇인가?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것은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투자 환경과 투자 행태까지 바꿔 놓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금융문맹을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자에 눈을 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투자의 열기가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한 투자를 모색할 때다.

2020년은 변화의 해였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투자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재난 지원 및 각국의 재난 지원 정책의 영향이 컸다.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언택트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힘입어 투자에 뛰어든 것이다. 평생 동안 주식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재테크의 '재' 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투자시장으로 달려들었다. 이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2021년은 지난해의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투자의 노멀을 세워나가는 뉴노멀의 시대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투자의 열기는 자칫 자신을 태워버리는 불길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위험자산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법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서 **스마트 투자 'SOL'**을 제시한다. SOL이란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 시니어인 **쏟드족의** 스마트한 투자를 대변한다. **쏟드족의** 투자는 다르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장기적으로는 고수익을 내는 스마트한 투자! 'SOL'은,

첫째, 스마트한(Smart) 분산투자다.

스마트한 자산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필수이다.

둘째, 지속적인(Ongoing) 리밸런싱이다.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인다.

셋째, 장기적인(Long-term) 투자전략이다.

실패 없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처럼 'SOL'은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 시니어인 **쏟드족의** '스마트한 투자, 투자형 은퇴설계'인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스마트한 은퇴설계로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건강을 누리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쏟드족', 그들의 스마트한 투자형 은퇴 설계가 은퇴 후 50년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I 쏟드족의 스마트 투자



쏟드족은 왜 투자를 하는가?
달라진 금융환경, 투자에 눈 뜨다
쏟드족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쏟드족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쏟드족의 연금투자, 무엇이 다른가?





66
 쏘드족,
 어떻게
스마트 투자를
 할까?
 99

| | |
|-------|--|
| 조사 대상 | ① 전 국민 30~59세 직장인 남녀 ② 현재 개인 금융자산(부동산 제외) 1,000만 원 이상인 자 ③ 본인 명의의 IRP를 보유하고 있는 자 |
| 표본 구성 | 30대·40대·50대 각 100명씩 총 300명 (성별 및 연령 균등 할당)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Mobile Survey |
| 조사 기간 | 2021년 5월 28일 ~ 29일 |
| 조사 기관 | (주)오픈서베이 |

(그래프 및 표에 있는 N = 응답자 수)

翼翼 쏘드족은
 왜 ☆
 투자를
 하는가?



주식, 펀드 등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사람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금융 투자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은퇴자산 마련이었다.
 은퇴 준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생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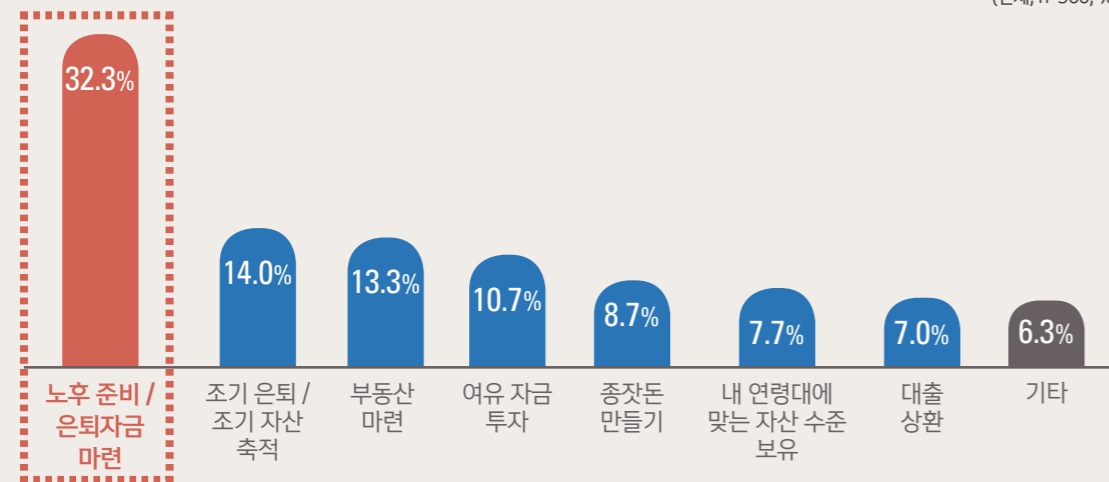
금융 목표

투자의 주된 목표는 바로 '은퇴 준비'

왜 투자를 하는가?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3%가 '노후준비/은퇴자금 마련'을 꼽았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은퇴자금 마련'의 비중이 증가해서, 50대의 47%가 '은퇴자금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라고 답했다. 단 30대만큼은 부동산 마련을 1순위로 꼽았는데, 이어지는 2순위는 역시 '노후준비/은퇴자금 마련'이었다. 젊은 층인 30대에게도 은퇴자산 마련이 금융 목표의 중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금융 목표(1순위)

(전체, n=300, %)



66 투자를 하는 주목적은 은퇴자산 마련이다. 99

| | 30대 (n=100) | 40대 (n=100) | 50대 (n=100) |
|--------------------|-------------|-------------|-------------|
| 노후 준비 / 은퇴자금 마련 | 17.0 | 33.0 | 47.0 |
| 조기 은퇴 / 조기 자산 축적 | 10.0 | 19.0 | 13.0 |
| 부동산 마련 | 23.0 | 11.0 | 6.0 |
| 여유 자금 투자 | 17.0 | 7.0 | 8.0 |
| 종잣돈 만들기 | 11.0 | 8.0 | 7.0 |
| 내 연령대에 맞는 자산 수준 보유 | 7.0 | 11.0 | 5.0 |
| 대출상환 | 8.0 | 5.0 | 8.0 |
| 기타 | 7.0 | 6.0 | 6.0 |

30대 17.0% 50대 47.0%

투자 기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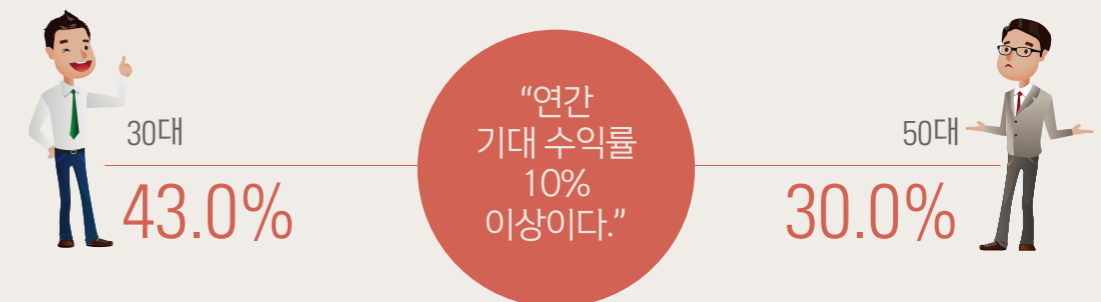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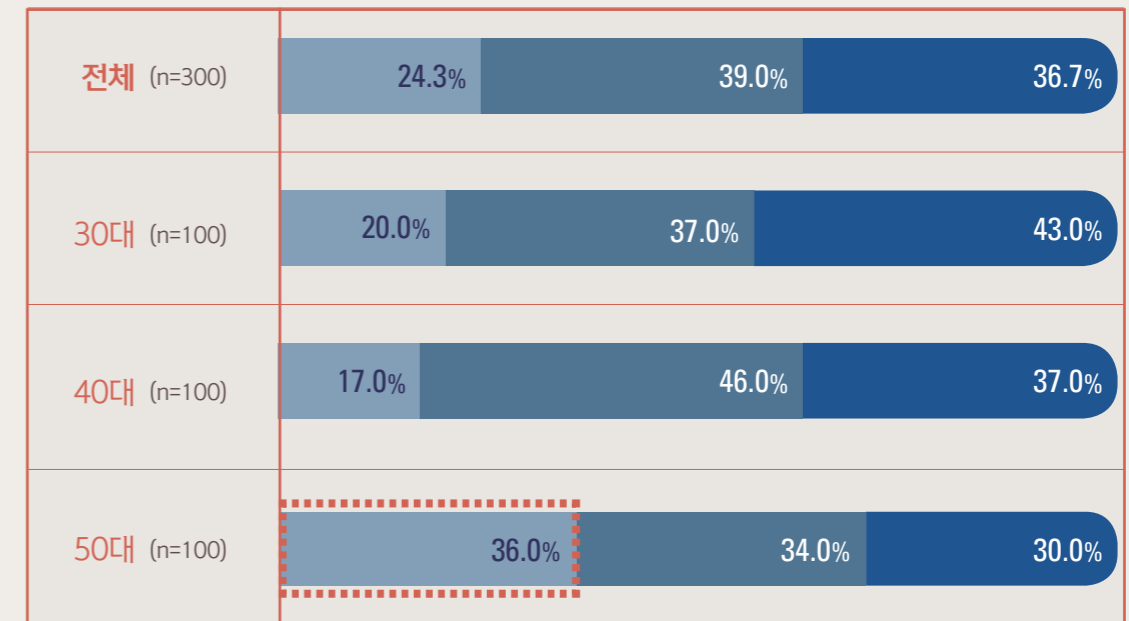
투자의 자신감, 젊은 층일수록 높아

투자의 기대 수익률에 대해 30대의 43%가 "10% 이상" 수익을 기대한 데 반해 50대는 10% 이상 수익을 기대한 사람이 30%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 또 "5% 미만" 수익을 예상한다는 답변은 30대에서 20%에 그친 반면 50대에서는 36%나 됨으로써 젊은 층일수록 투자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대 연간 투자 수익률

(전체, n=300, %)

■ 5% 미만 ■ 5~10% 미만 ■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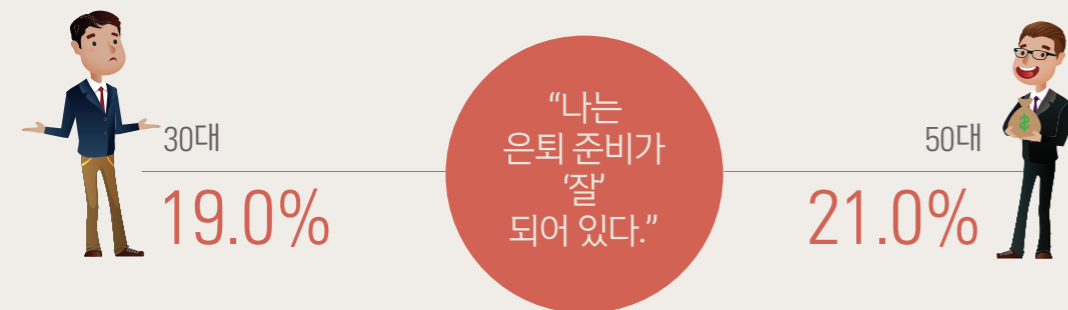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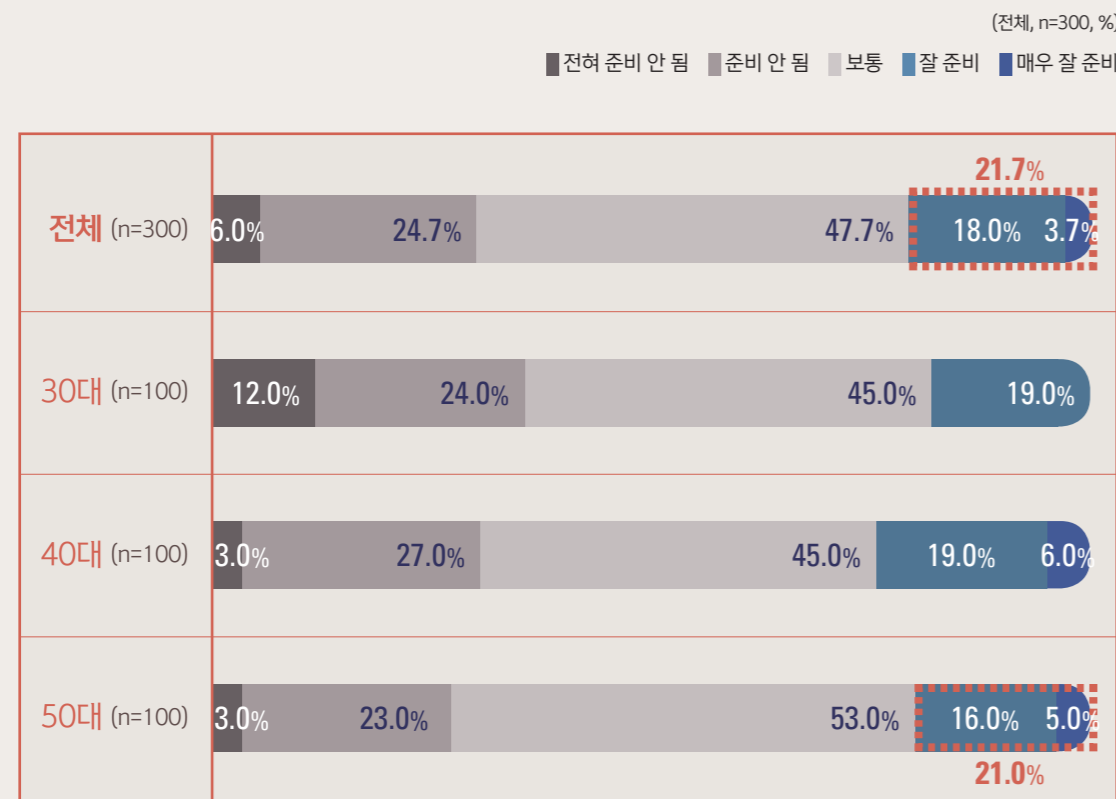


은퇴 준비 자가진단

적극적 투자 통한 은퇴자산 마련 필요

스스로의 은퇴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전체 연령의 21.7%만이 은퇴 이후 노후 생활자금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보통” 혹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은퇴 시기가 가까운 50대의 경우에도 대부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투자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은퇴자산 마련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은퇴 이후 노후 생활 자금 준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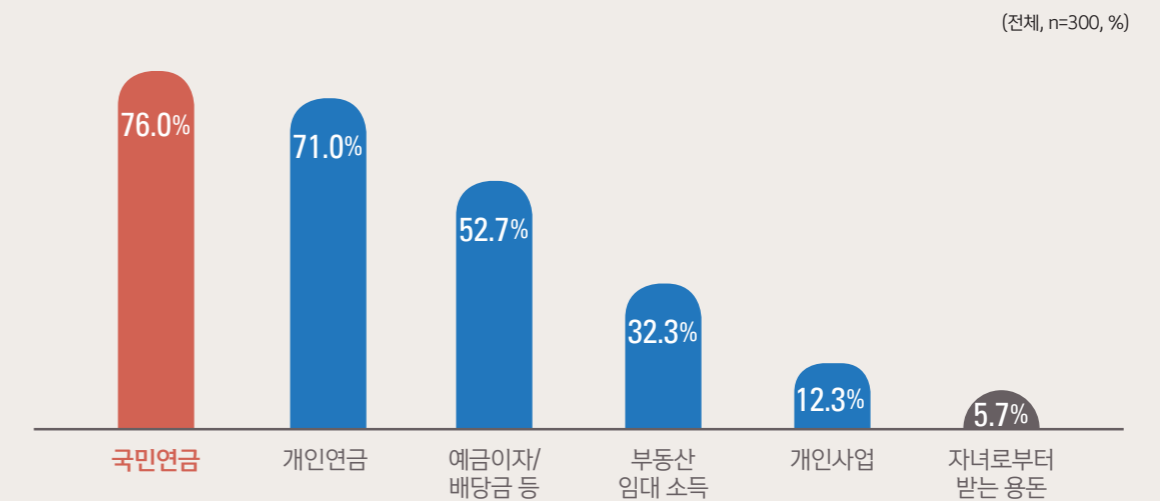


은퇴 후 수입원

은퇴 후 연금생활 기대감 높아

은퇴 이후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방법으로는 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예상하고 있었다. 연금 다음으로 예금이자/배당금 등 금융투자 수익을 기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50대에 비해 기대감이 컸다.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났다.

은퇴 이후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방법(복수응답)



달라진 금융환경, 투자 눈 뜨다



2020년 세상이 달라졌다.
투자의 '투'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투자 열풍은 주식을 넘어 암호화폐로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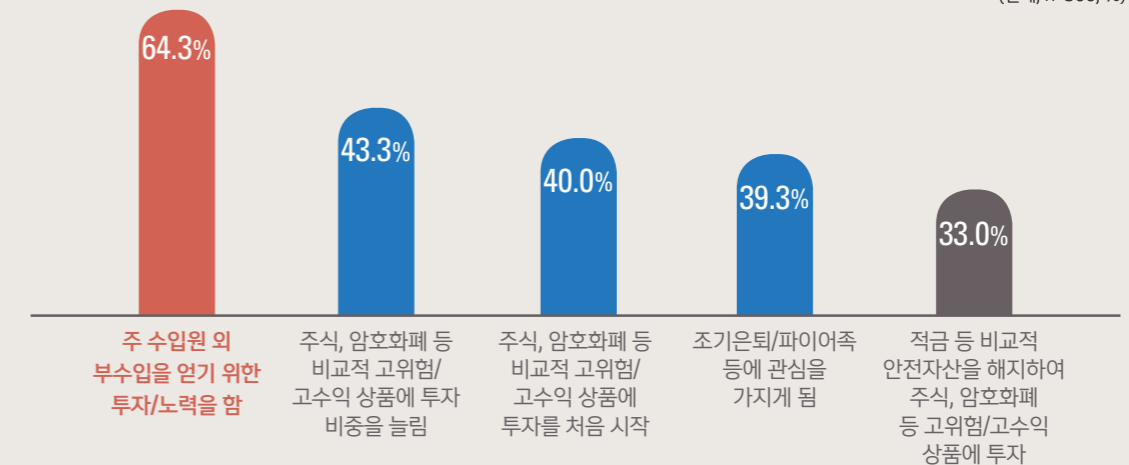
투자의 변화

부수입 위해 주식 투자 시작

2020년 많은 사람들이 투자시장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응답자의 40%가 2020년 이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시작했다. 또 전체의 64% 이상이 2020년 이후 주 수입원 외 부수입을 얻기 위한 투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주식, 암호화폐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투자, 조기은퇴/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 50대 역시 61%나 부수입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30·40대 대비 고위험/고수익 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 경향이 있었다.

2020년 이후 경험 및 행동 사항(복수응답)

(전체, n=300, %)



| 2020년 이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시작했다. | 30대 (n=100) | 40대 (n=100) | 50대 (n=100) |
|---|-----------------------------|----------------|----------------|
| | 주 수입원 외 부수입을 얻기 위한 투자/노력을 함 | 66.0 | 66.0 |
| 주식, 암호화폐 등 비교적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 비중을 늘림 | 53.0 | 43.0 | 34.0 |
| 주식, 암호화폐 등 비교적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처음 시작 | 51.0 | 36.0 | 33.0 |
| 조기은퇴/파이어족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됨 | 46.0 | 38.0 | 34.0 |
| 적금 등 비교적 안전자산을 해지하여 주식, 암호화폐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 | 43.0 | 28.0 | 2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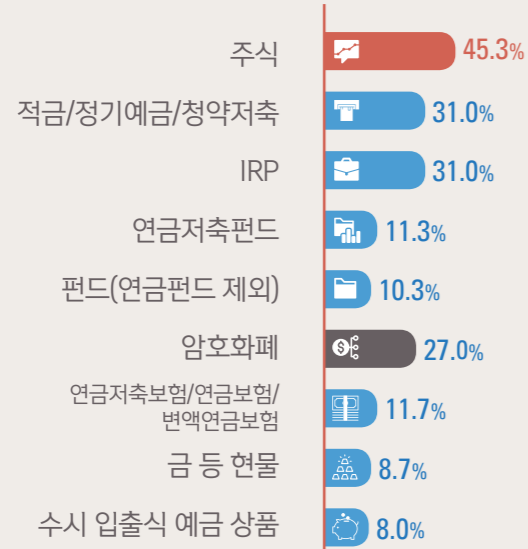
상품별 선호도

주식 투자 열기 암호화폐로 이어져

주식,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5% 이상이 최근 1년 내 주식투자를 하였고, 또 전체의 73%가 앞으로도 1년 내 지속 투자 혹은 신규 투자의 의향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주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 열기는 암호화폐로까지 확대되어 30대의 33%가 암호화폐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 반면 50대는 암호화폐보다는 IRP 가입 투자 의향이 타 연령 대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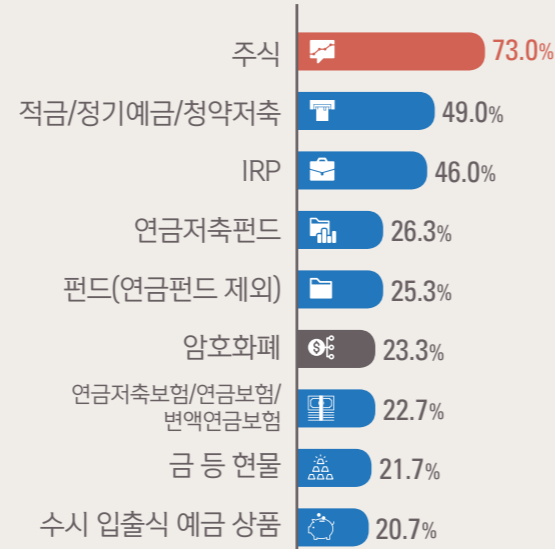
1년 내 새로 가입 (복수응답)

(전체, n=300, %)



향후 1년 내 투자방향 (복수응답)

(전체, n=300, %)



| | 30대 (n=100) | 40대 (n=100) | 50대 (n=100) |
|--------------------|----------------|----------------|----------------|
| 주식 | 48.0 | 46.0 | 42.0 |
| 적금/정기예금/청약저축 | 27.0 | 26.0 | 40.0 |
| IRP | 21.0 | 34.0 | 38.0 |
| 연금저축펀드 | 11.0 | 12.0 | 11.0 |
| 펀드(연금펀드 제외) | 12.0 | 8.0 | 11.0 |
| 암호화폐 | 33.0 | 28.0 | 20.0 |
|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 8.0 | 11.0 | 16.0 |
| 금 등 현물 | 9.0 | 9.0 | 8.0 |
| 수시 입출식 예금 상품 | 5.0 | 11.0 | 8.0 |

| | 30대 (n=100) | 40대 (n=100) | 50대 (n=100) |
|--------------------|----------------|----------------|----------------|
| 주식 | 78.0 | 79.0 | 62.0 |
| 적금/정기예금/청약저축 | 42.0 | 51.0 | 54.0 |
| IRP | 37.0 | 49.0 | 52.0 |
| 연금저축펀드 | 25.0 | 30.0 | 24.0 |
| 펀드(연금펀드 제외) | 27.0 | 26.0 | 23.0 |
| 암호화폐 | 31.0 | 19.0 | 20.0 |
|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 17.0 | 30.0 | 21.0 |
| 금 등 현물 | 26.0 | 19.0 | 20.0 |
| 수시 입출식 예금 상품 | 20.0 | 22.0 | 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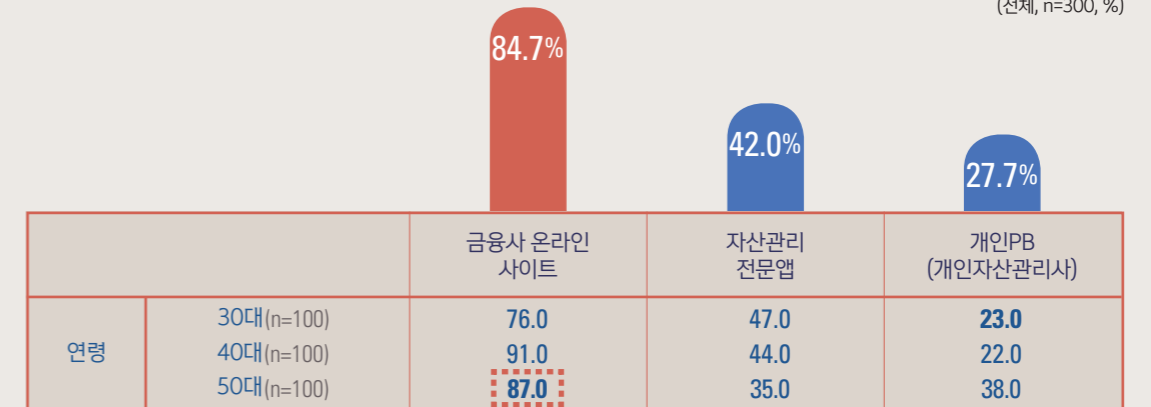
금융 정보 획득 및 상품 관리

주로 언택트 방식으로 정보 구해

금융상품 투자 시, 주로 인터넷 포털 검색을 활용하고 상품 관리 시에도 대부분 금융사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투자 시 “오프라인 지점/직원/설계사/상담사” 등의 영향이 타 연령 대비 다소 높았지만, 동시에 금융 투자상품 관리는 “금융사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답변이 87%로 30대의 76%보다 많아,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투자상품 관리 방법(복수응답)

(전체, n=300, %)



실제 금융상품 투자 영향을 미치는 채널(복수응답)

(전체, n=300, %)

| | 30대 (n=100) | 40대 (n=100) | 50대 (n=100) |
|------------------------|----------------|----------------|----------------|
| 인터넷 포털 검색 | 30.0 | 46.0 | 45.0 |
| 가족/지인/친구 | 39.0 | 31.0 | 35.0 |
| 뉴스/신문/잡지 | 32.0 | 29.0 | 31.0 |
| 유튜브 | 34.0 | 33.0 | 22.0 |
| 투자관련 온라인 카페/커뮤니티/게시판 | 21.0 | 27.0 | 14.0 |
| 금융사 오프라인 지점/직원/설계사/상담사 | 10.0 | 10.0 | 18.0 |

쏟아붓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가장 선호하는 금융투자는 '주식'이었다. 그러나 '적금/정기예금/청약저축'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적지 않았다. 투자에 눈 뜬 사람들은 이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연령별 투자성향

최우선 투자 대상은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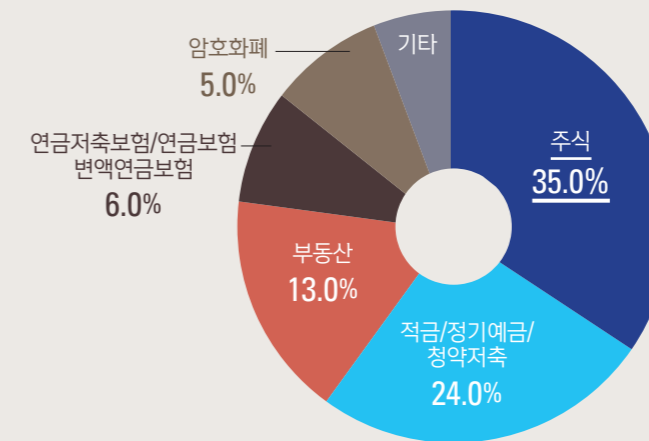
선호하는 투자대상은 주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적금/정기예금/청약저축'이었다. 연령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30·40대가 주식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은퇴가 가까운 50대는 적금/정기예금/청약저축을 가장 선호했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주식 선호도와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50대 역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단,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인형 IRP 선호비율이 높았다.

선호 투자 상품

(전체,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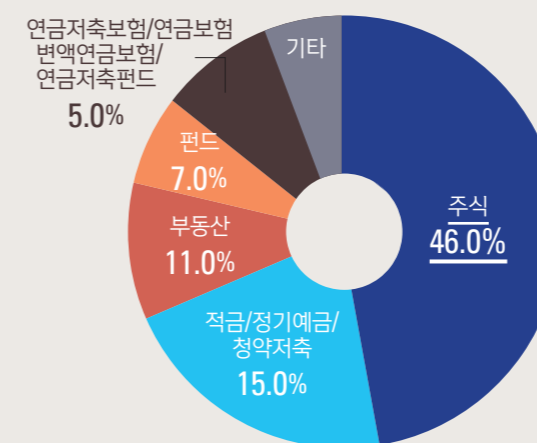
30대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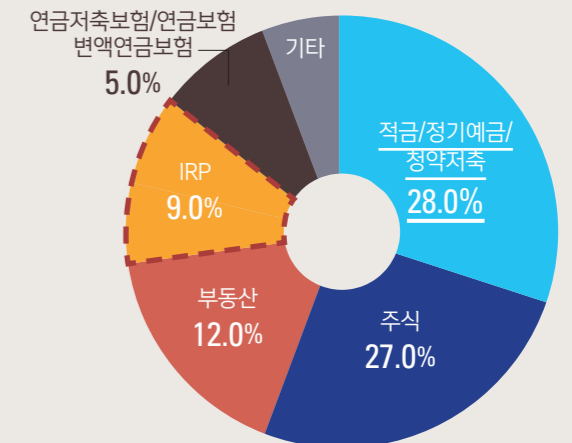
40대

(n=100)



50대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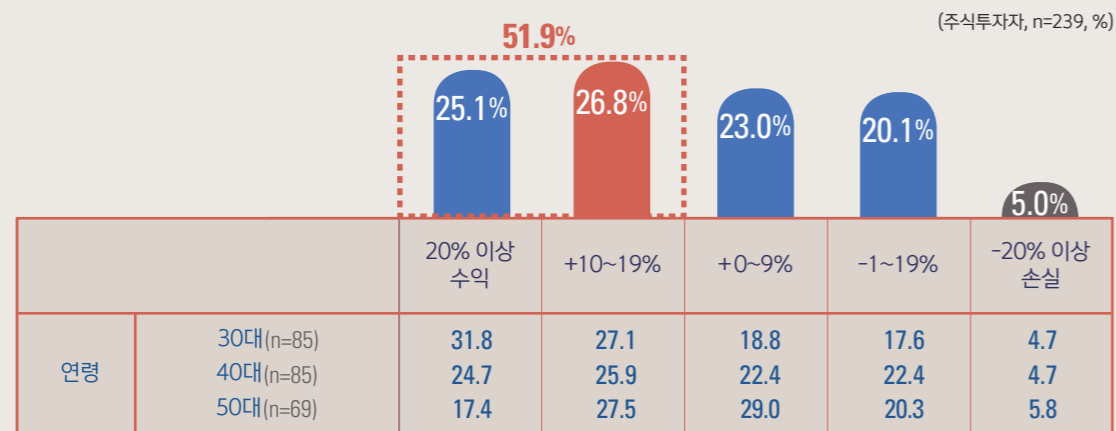


주식투자 금액/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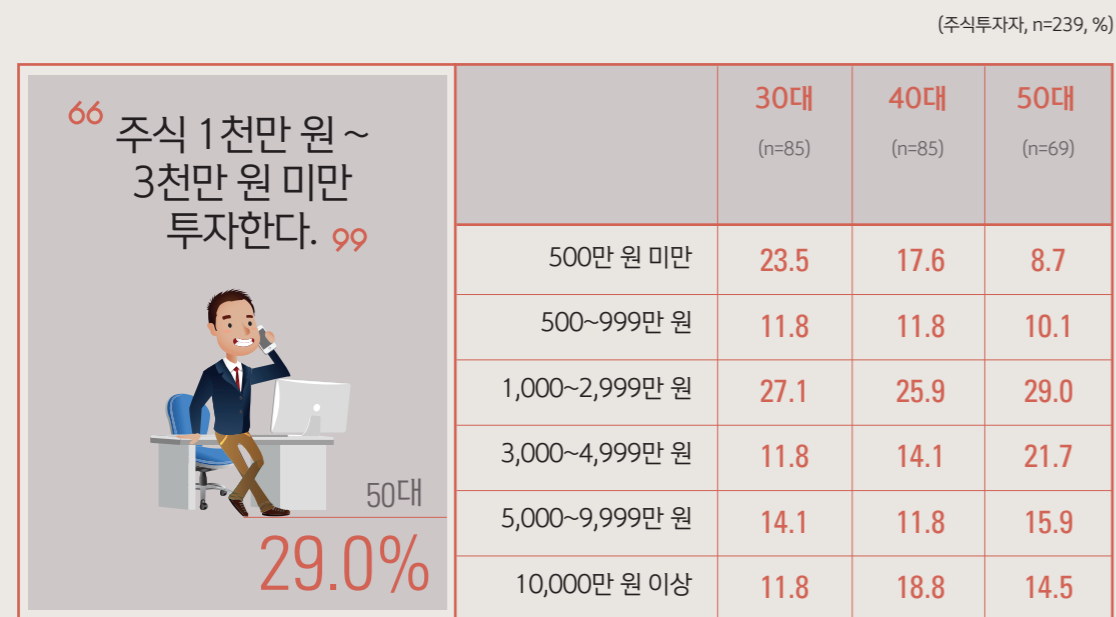
젊은 층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30~50대의 약 27%가 1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 중이었다. 또 투자자의 과반 이상이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0% 이상 고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30대가 가장 많은 반면, 10~19%의 중수익, 0~9%의 저수익을 내는 것은 50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50대의 투자성향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지향하는 30대에 비해 안전지향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식 투자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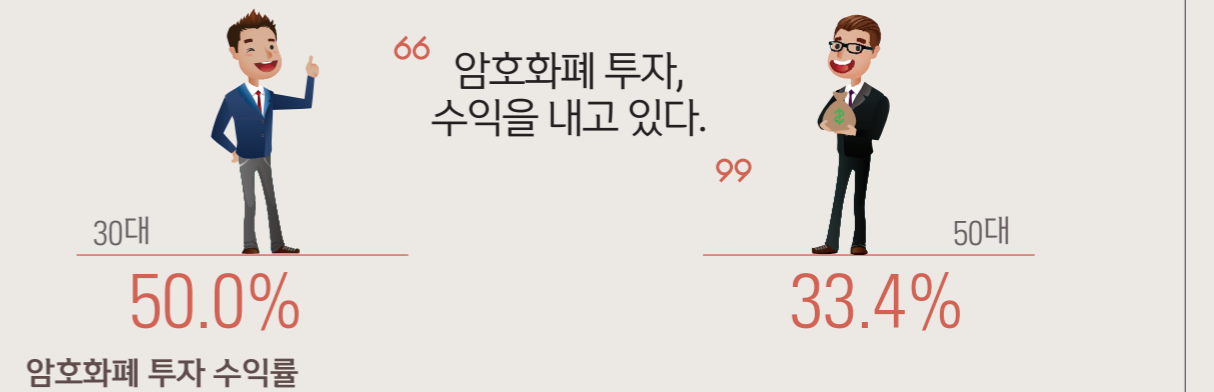
주식 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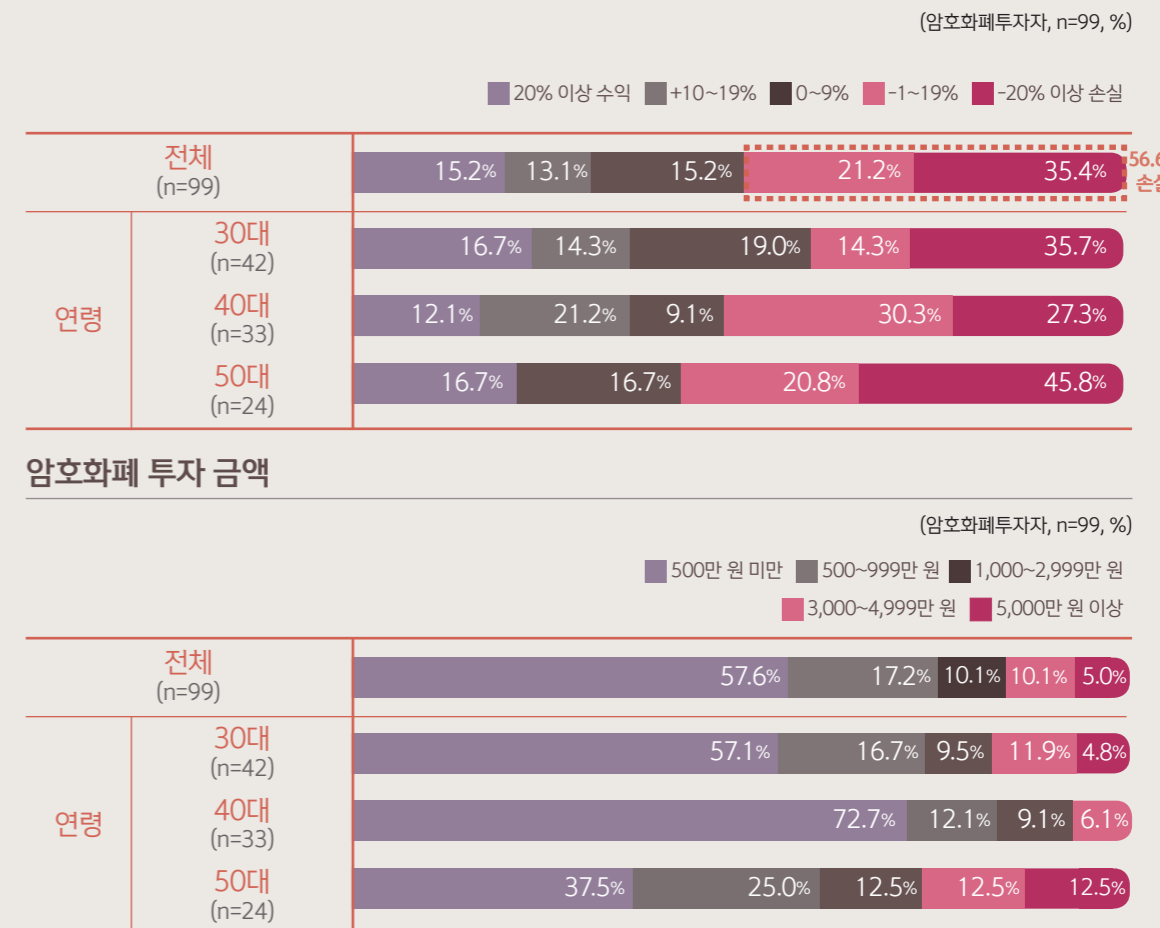
암호화폐 투자금액과 수익률

암호화폐 투자, 규모 적어도 손실 커

암호화폐 투자자의 57.6%는 5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 시점 기준 손실 비중이 약 56%로서 수익 비중보다 높았다. 50대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경우 30·40대 대비 투자금액은 다소 컸으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다.



암호화폐 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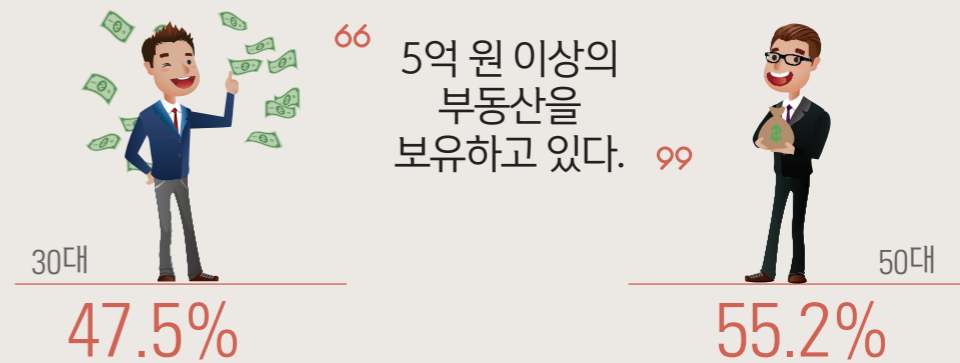
쏟아붓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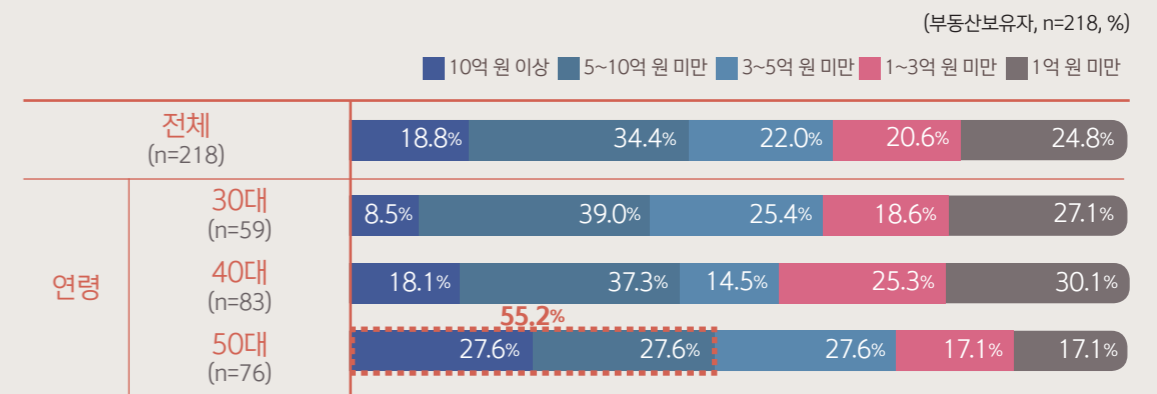
최근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전망에 긍정적이었고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다.

부동산 투자 행태 연령 높을수록 부동산 투자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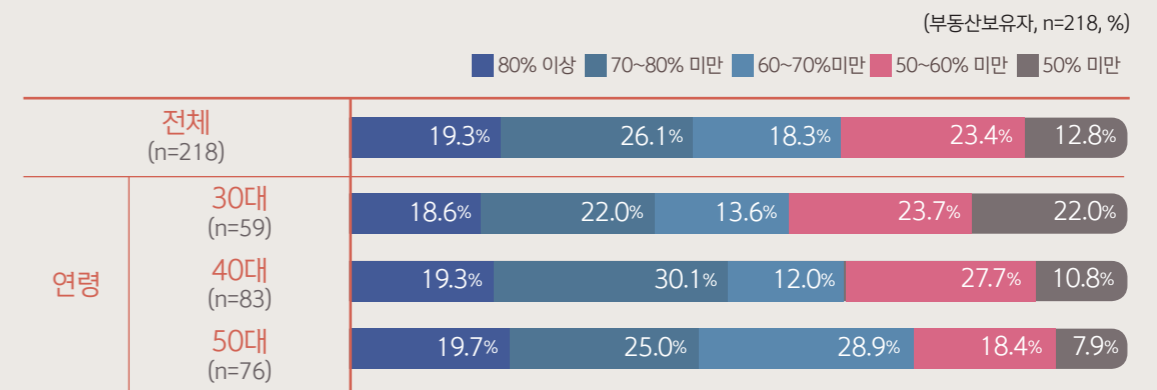
50대는 30·40대 대비 5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제일 높았다. 반면 30대는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제일 낮았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복수응답)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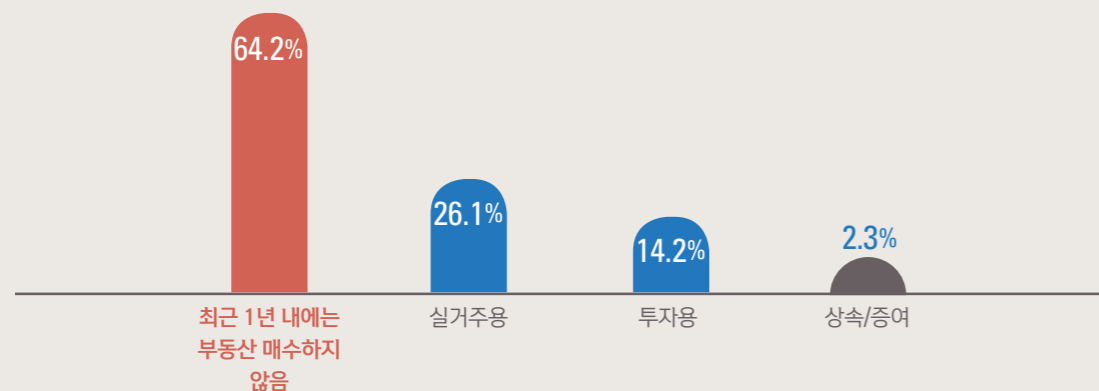
최근 부동산 투자 현황

부동산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 많아

최근 1년 내에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64.2%나 되었다. 특히 40·50대 부동산 보유자의 70% 이상은 최근 1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다. 반면에 젊은 층인 30대는 57.6%가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45.8%가 실거주 목적이었고, 투자 목적의 매입은 20.3%에 그쳤다.

1년 내 구입한 부동산 목적(복수응답)

(부동산보유자, n=218, %)



1년 내 구입한 부동산 목적(복수응답)

| 66 최근 1년 내 실거주용 부동산을 매입했다. 99 | 30대 (n=59) | | | 40대 (n=83) | | | 50대 (n=76) | | |
|-------------------------------|------------|-------|-----|------------|-------|-------|------------|-----|-----|
| | 30대 | 40대 | 50대 | 30대 | 40대 | 50대 | 30대 | 40대 | 50대 |
| 최근 1년 내에는 부동산 매수하지 않음 | 45.8% | 19.7% | | 42.4% | 71.1% | 73.7% | | | |
| 실거주용 | | | | 45.8% | 18.1% | 19.7% | | | |
| 투자용 | | | | 20.3% | 12.0% | 11.8% | | | |
| 상속/증여 | | | | 1.7% | 2.4% | 2.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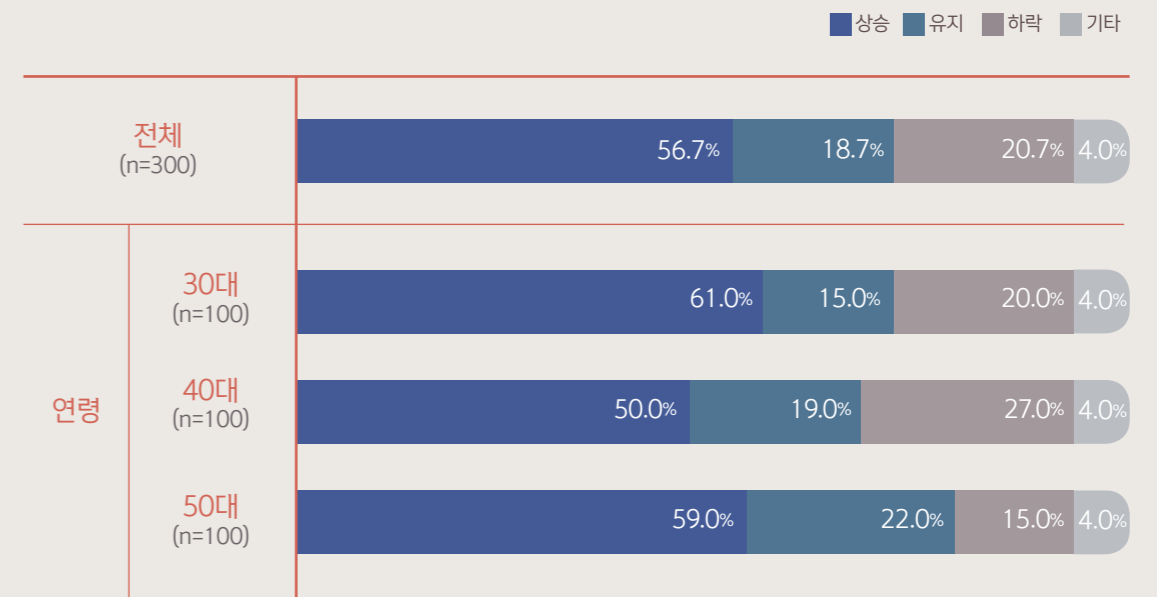
부동산 전망 및 투자계획

부동산, 장기적으로 상승 기대

전체 응답자의 56.7%가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의 약 79.7%는 실거주/실사용 목적으로, 59.7%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향후 5년 이내 매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

(전체, n=300, %)



☆ 썰드족의 연금투자!! ~~무엇이~~ 다른가?



50대는 개인형 IRP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하고 수익률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 연금투자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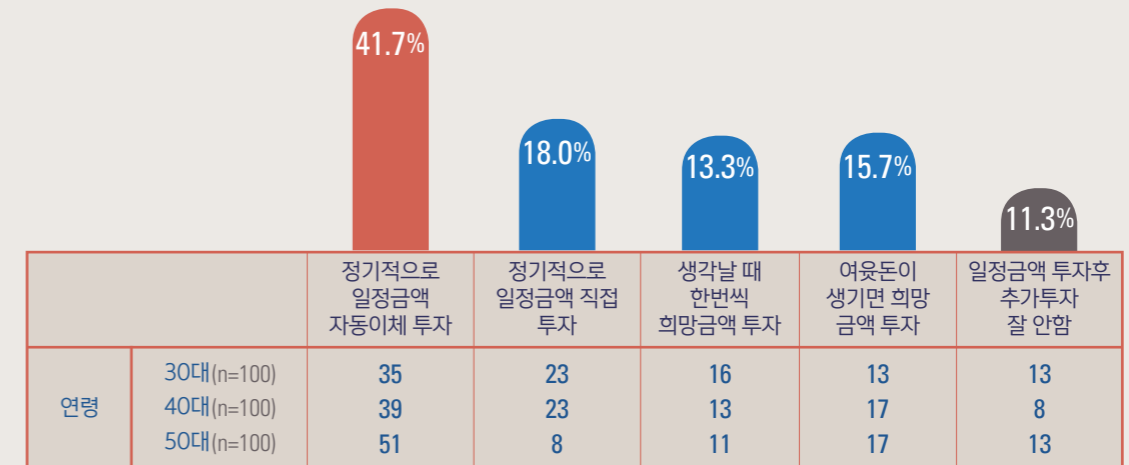
IRP 투자현황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

현재 IRP에 투자하고 있는 전체 응답자의 41.7%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하고 있었다. 50대의 경우 자동이체 투자 비중이 51%로 30·40대 대비 월등히 높고, 투자방식 역시 안정적 투자를 추구하고 있었다.

IRP 투자 방식

(전체, n=300, %)



IRP 상품 선택 시 본인 투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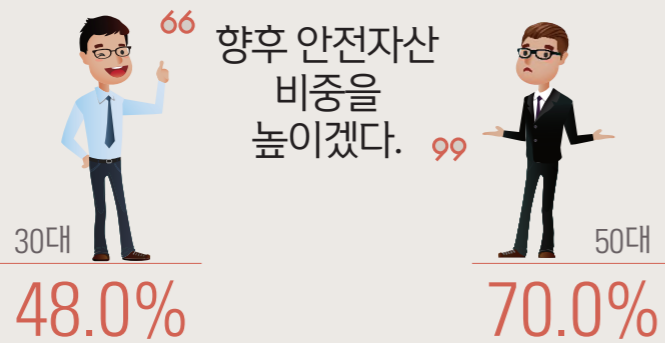
(전체, n=300, %)



IRP 투자현황

안전자산 중심 투자 늘릴 계획 많아

IRP 운용 상품은 예금과 국내펀드가 각각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자산 비중을 높ی겠다.”는 응답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보다 대체적으로 많았다. 50대는 30·40대 대비 예금/랩/신탁/TDF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의 70%가 향후 안전자산 비중을 증가하여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30대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IRP 투자 상품 종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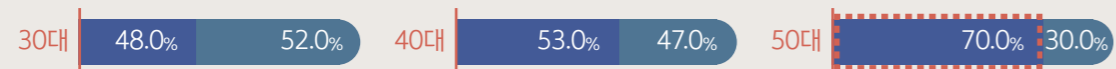
(전체, n=300, %)

| | 전체 (n=300) | 30대 (n=100) | 40대 (n=100) | 50대 (n=100) |
|-------------|---------------|----------------|----------------|----------------|
| 예금 | 32.7 | 30.0 | 29.0 | 39.0 |
| 국내펀드 | 32.3 | 33.0 | 39.0 | 25.0 |
| 해외펀드 | 16.3 | 16.0 | 21.0 | 12.0 |
| 채권 | 15.3 | 12.0 | 20.0 | 14.0 |
| ETF/ETN | 15.0 | 16.0 | 18.0 | 11.0 |
| 랩/신탁 | 9.0 | 7.0 | 7.0 | 13.0 |
| TDF | 7.7 | 8.0 | 4.0 | 11.0 |
| 기타 | 15.7 | 14.0 | 12.0 | 21.0 |
| 기억 안 남/잘 모름 | 17.3 | 21.0 | 17.0 | 14.0 |

향후 IRP 운영 방향

■ 안전자산 ■ 위험자산

(전체,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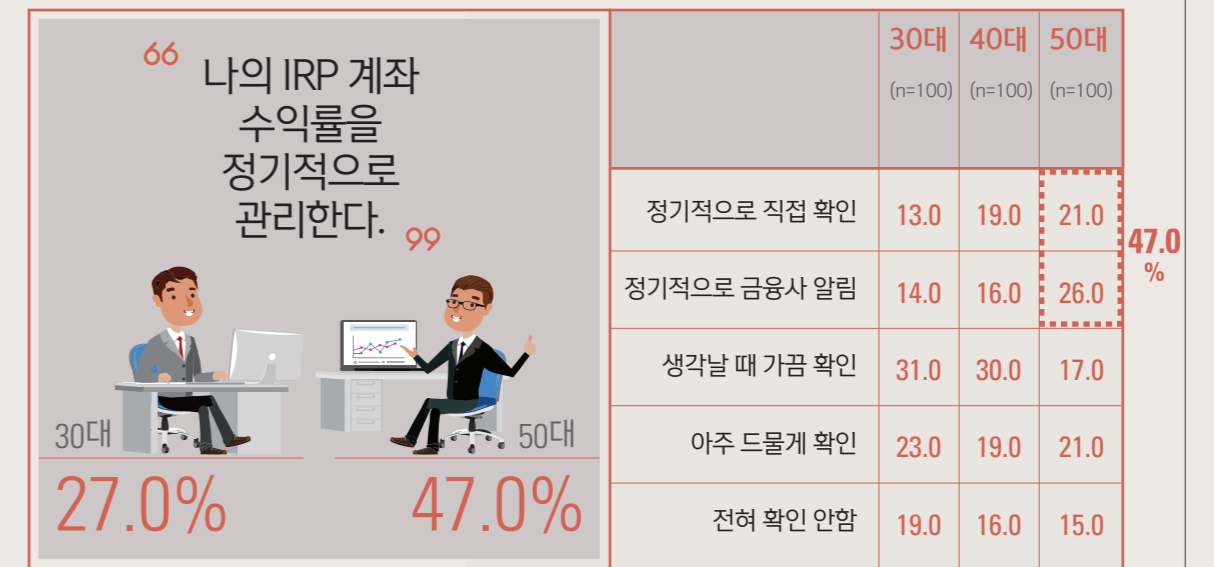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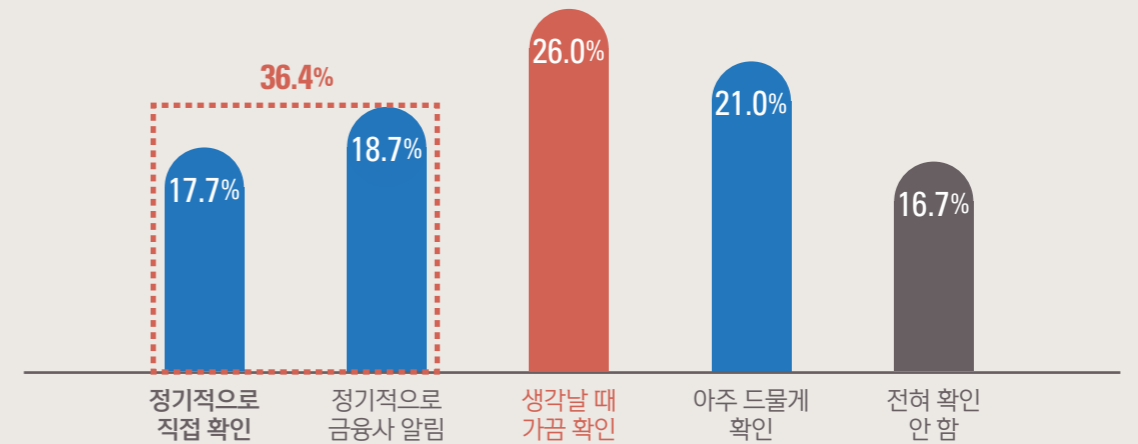
IRP 계좌 관리

50대, IRP 수익률 정기적 점검 관리

전체의 36.4%가 직접 혹은 금융사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IRP 수익/손실률을 점검하고 있었다. 반면에 16.7%는 “전혀 확인을 안 한다.”고 답했다. 50대는 47%가 정기적으로 IRP 수익률을 직접 혹은 알림을 통해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정기적인 수익률 체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개선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IRP계좌 수익/손실률 점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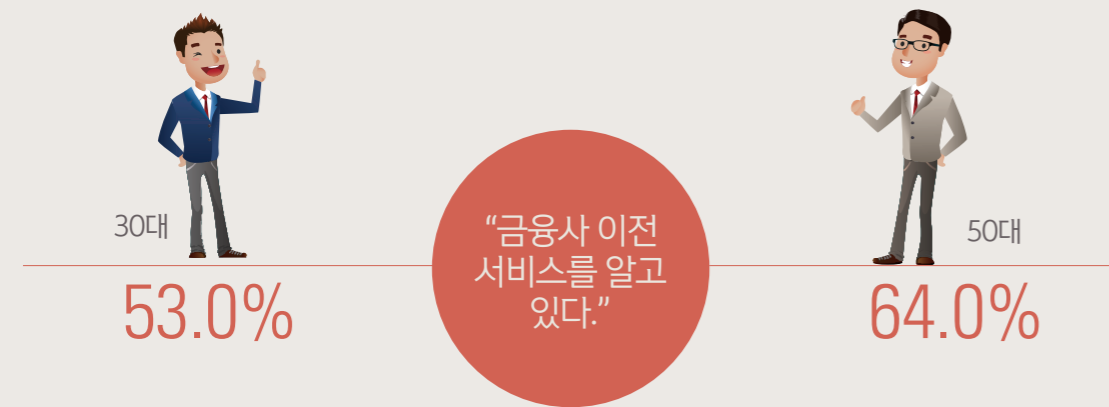
(전체, n=300, %)



IRP 금융사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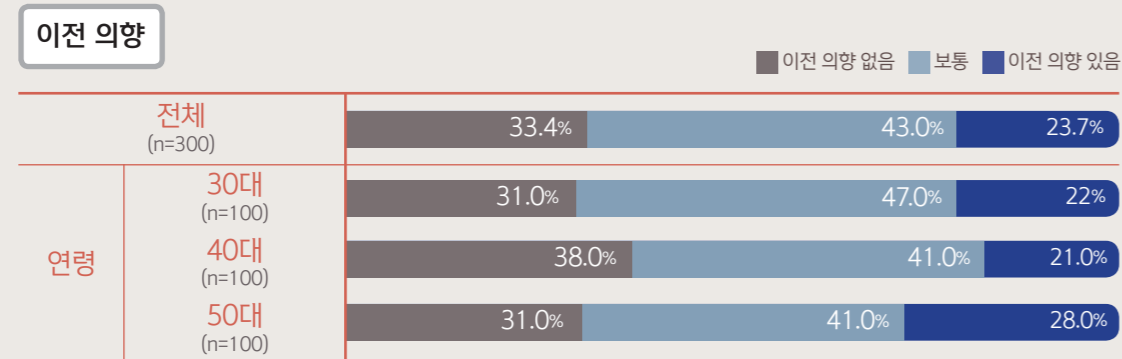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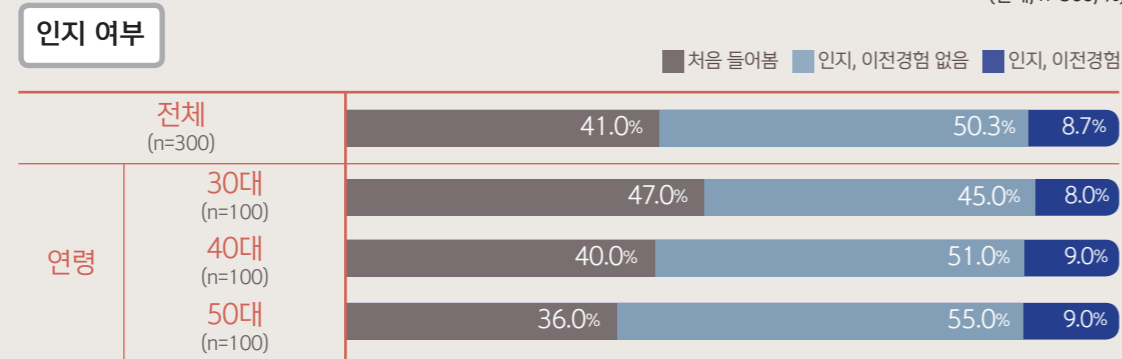
50대, 금융사 이전 정보 및 서비스 활용 높아

전체 IRP 투자자의 41%가 금융사 계약이전이 가능함을 모르고 있었고, 단 8.7%만이 실제로 이전 경험이 있었다. 다만 50대 계약이전 인지 비율이 30·40대 대비 높으며, 향후 이전 의향도 제일 상위로 나타났다. 계좌이전의 이유는 전체적으로 수익률, 전문성 등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50대는 수익률 및 수수료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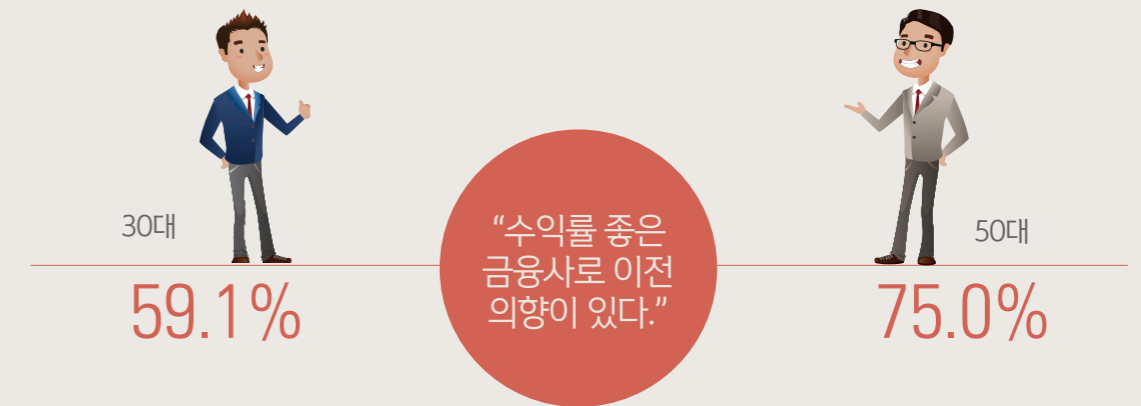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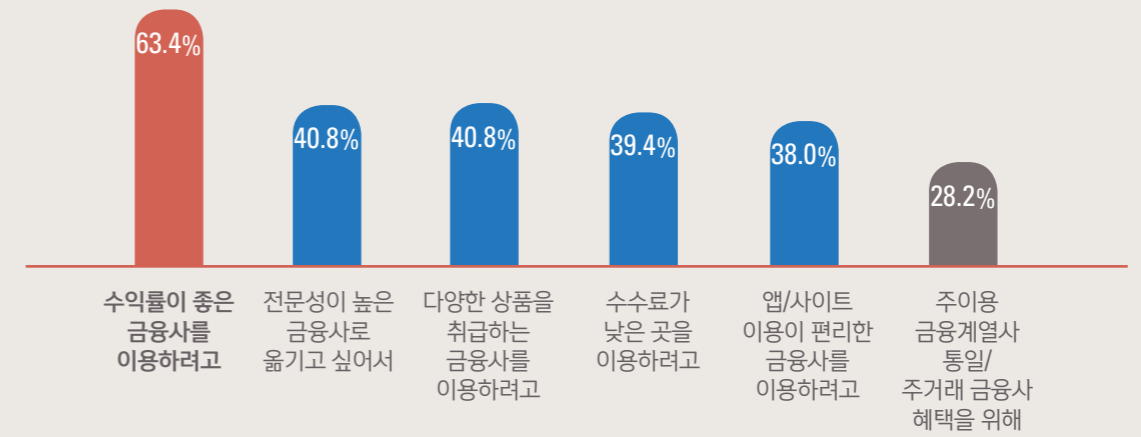
IRP 금융사 이전 가능 인지 여부 및 의향

(전체, n=300, %)



IRP 금융사 이전 의향 있는 이유(복수응답)

(IRP 이전 의향자, n=71, %)



| | 30대 (n=22) | 40대 (n=21) | 50대 (n=28) |
|-----------------------------|------------|------------|------------|
| 수익률이 좋은 금융사를 이용하려고 | 59.1 | 52.4 | 75.0 |
| 전문성이 높은 금융사로 옮기고 싶어서 | 36.4 | 42.9 | 42.9 |
|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를 이용하려고 | 36.4 | 52.4 | 35.7 |
| 수수료가 낮은 곳을 이용하려고 | 31.8 | 38.1 | 46.4 |
| 앱/사이트 이용이 편리한 금융사를 이용하려고 | 31.8 | 57.1 | 28.6 |
| 주이용 금융계열사 통일/주거래 금융사 혜택을 위해 | 36.4 | 19.0 | 28.6 |



II 인생 2막 연금 투자



- # 투자신 선배는 어떻게 '연금부자'가 되었나?
- # 대박의 꿈, 텅 빈 계좌로 끝나다
- # 주린이 대리, 투자의 신으로 변신!
- # 有돈장수 50년, 투자는 계속된다



투자신 선배는 어떻게 '연금부자'가 되었나?



“은퇴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은퇴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 그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이상한 소문이 들리자 주린이 대리는 얼마 전 은퇴한 고지식 선배가 생각났다. 고지식 선배는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라 친분이 두터웠던 데다, 영업·마케팅의 귀재로서 회사를 주름잡았던 까닭에 주 대리가 롤모델로 삼은 인물이었다.

“설마 고 선배가 사라진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원이 꺼져 있는 게 아닌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퇴근길에 바로 고지식 선배 집을 찾아갔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나 보다. 사라진 것이다, 고 선배가!

“흑흑. 한 달째 연락이 없어요. 실종 신고는 했는데, 정말 불안해요. 큰아들 녀석은 아직 취업도 못 했고 작은 애도 대학 공부가 남았는데 가장이 사라지다니,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앞날이 막막해요.”

주린이 대리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을까요? 어디로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거나...”

“아...사라지던 날 밤에 카톡이 하나 들어 왔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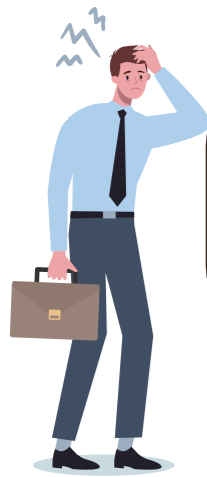
다급하게 묻는 주린이 대리에겐 그녀가 보여준 카톡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SOL을 알았더라면..!”

왠지 특에서 고 선배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솔’이 뭐길래? 그날 이후 주린이 대리는 이곳저곳을 헤매다녔다. 고 선배가 잘 가던 술집, 식당 등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솔이 무엇인지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연금투자연구소’에 ‘닥터 솔(SOL)’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 선배가 말한 솔이 과연 ‘닥터 솔’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연구소를 찾아갔다. “솔 박사님은 저명인사의 소개장이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연구소 직원의 단호한 거절에 주린이 대리는 나무를 도끼로 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내리찍겠다는 결사 각오로 매일 연구소를 찾아갔다. 연구소 앞에 자리 깔고 버티던 어느 날. 드디어 여직원이 ‘졌다’는 표정으로 주 대리를 닥터 솔에게 안내해 주었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 박사의 매서운 눈빛이 주 대리를 긴장시켰다.

“닥터 솔이네. 솔 연구에 미치다 보니 붙은 닉네임이지.”



“박사님. 도대체 쓸이라는 게 뭡니까?”

“박사님. 도대체 쓸이라는 게 뭡니까? 고지식 선배는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닥터 쓸이 고 선배의 행방을 알고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차서 다짜고짜 물었다. 그러자 닥터 쓸은 주린이 대리에게 HMD(머리 착용 영상기기)를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 쓰자 주 대리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가상현실로 펼쳐졌다.

“아니. 저. 저건!”

거대한 빙하가 떠나려가는데 빙하의 깨진 틈 사이에 사람들이 떨어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고지식 선배도 있었다. 더 멀리를 보라는 쓸 박사의 말에 주 대리는 빙하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하늘로 솟아오른 고층 빌딩 로얄층의 전망 좋은 방에서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하. 이젠 나는 연금 부자야. 은퇴자산이 몇 배로 불었다고!”

그는 투자신 선배였다. 투자신은 고지식의 최강 라이벌! 막상막하 실력을 자랑하던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고지식은 빙하 틈에 떨어져 죽어가고 투자신은 화려한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던 말인가. 충격에 휩싸이는 순간, 닥터 쓸이 버튼을 누르자 주린이 대리 앞의 광경이 사라져 버렸다.

“박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고지식 선배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쓸 박사는 고개를 가만히 젓더니 짧게 내뱉었다.

“고지식은 소득 크레바스에 빠진 거지. 다시 돌아오기 힘드네.

구조선 ‘국민연금선’이 올 때까지 버틸 수도 없을 걸세.”

“쓸을 알면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네!”



“네? 뭐라고요? 그...그렇다면 투자신 선배는 어떻게 크레바스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월급쟁이가 은퇴 후에 저런 펜트하우스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까? 상속이라도 받은 건가요?”

“그게 바로 쓸의 힘이지.”

고지식 선배가 마지막에 외쳤던 바로 그 쓸! 주린이 대리는 박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허락된다고 하던데, 바로 그 기회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주 대리는 직감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마음 속 목소리가 아우성쳤다.

“박사님! 쓸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만 가게. 쓸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순 없어!”

“박사님! 제발...!”

“이 손 놓게!”

“박사님.”

“아니 이 사람이!”

“박사님. 전..물려받은 돈 하나 없이 이날 이때까지 혼자 힘으로 힘들게 살아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살아남았죠.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여전히 멀기만 한 꿈이고 생계를 위해서 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나는 괜찮지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어요. 내 자식들이 나처럼 일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게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박사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주 대리의 외침에 쓸 박사가 걸음을 멈추더니, 서서히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가족을 생각하는 자네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였네. 정 그렇다면 비밀을 아주 조금만 가르쳐 주지.”

주린이 대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박사의 매서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게 바로 쓸의 힘이지.”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 직장에서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므로 평균 55세 퇴직부터 약 10년 동안 수입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한다. 빙하에 생긴 깊은 균열인 크레바스에 소득 공백기를 빚댄 표현이다.

01.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 고령화, 필요한 은퇴자금이 점점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은퇴자금 규모가 점점 커지는 데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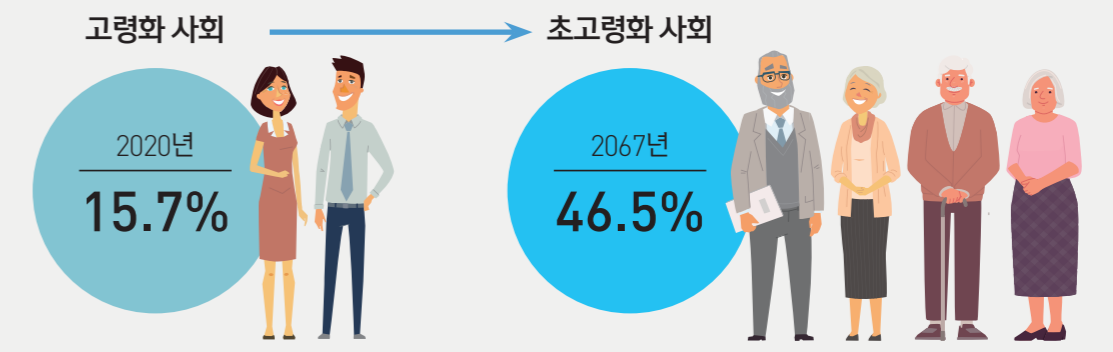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9년 83.3세(남성 80.3세, 여성 86.3세)에 달하게 되었다(통계청, 2019년 생명표).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8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다가오는 2067년에는 노인인구가 4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이처럼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의 은퇴 준비는 잘 되어 있을까? 2020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이다. 그리고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4.8%가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은퇴 준비의 부족을 호소한 것이다. 또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205만 원, 적정 생활비는 294만 원이라고 답했다(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은퇴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고에 처할 위험마저 크다. 실제로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면 43.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멕시코 24.7%, 라트비아 39.0%보다도 월등히 높고, OECD 평균인 14.8%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통계청, 2020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 등 적극적인 연금 설계, 더 나아가 연금 투자를 통해 수익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 가구주: 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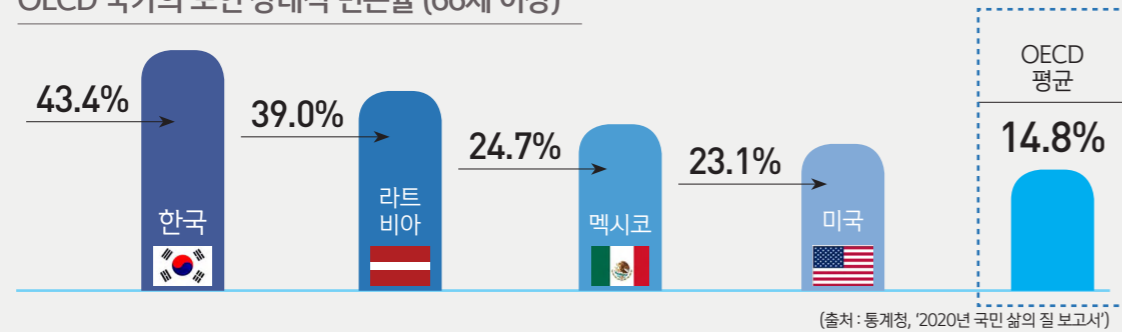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은퇴 후 필요 생활비(부부 기준)



(출처: 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 (66세 이상)



(출처: 통계청, 2020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

✓ 인플레이션,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산 금액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수익을 내야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인플레이션 이야기로 뜨겁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0% 오르면서 2008년 8월(5.3%) 이후 약 13여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불확실성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한숨 돌리기를 반복하면서 혼재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이렇게 주식시장을 위락파락하는 것일까?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분기(1~3월) 소비자물가 신선품지수*는 135.07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올랐다. 일명 '밥상물가'라 불리는 신선품지수가 폭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얼마 전만 해도 만 원으로 잘하면 계란 두 판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젠 만 원으로 계란 한 판도 사기가 힘들어졌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물가상승은 화폐가치 더 나아가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

* 신선품지수: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조건과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초로 작성한다.

✓ 저금리, 정기예금 가입해도 자산이 늘지 않는다

수억 원의 자산이 있어도 이자소득만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다. 유례없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를 받아도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예금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늘려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정기예금에 넣어 두고서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이자수익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적금만 잘 관리해도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0%를 상회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보다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마음 편하게 자산을 불려갈 수 있었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10%를 넘던 금리가 한 자리 수가 되었다. 또 2004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금리 기조는 점점 강해졌다. 특히 2014년 이후로는 정기예금 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고, 그마저도 이자소득세(15.4%)를 빼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저금리의 정점을 찍은 것은 지난 2020년이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을 비롯 각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 2021년 6월 현재 정기예금 금리는 연 0.8%에 불과하다.

정기예금 금리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 2021년)

02.

잠자는 연금을 깨워라 가장 안전한 '성공 투자'다



“연금 통장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네. 연금 마련도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도 낼 수가 있으니 꿍 먹고 알 먹는 셈이지”

“연금 통장에 납부한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주식 투자 직접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연금 통장을 통해서 하나요? 연금까지 들 여력이 없어요.”

“연금 통장은 혜택이 많아. 세액공제로 환급도 받고 운용수익이 생겨도 세금을 바로 낼 필요가 없다네. 그렇게 절감된 돈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점점 복리로 불어나지. 그러니 수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나중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네.”

“똑같이 연 400만 원 납부해도 20년 후에 수익률 1%인 잔고는 8,800만 원이지만, 수익률 5%인 잔고는 1억 3,800만 원이 되어 있지! 이래도 투자를 안할 텐가?”

✓ 적은 금액이라도 굴러라 굴릴수록 복리로 불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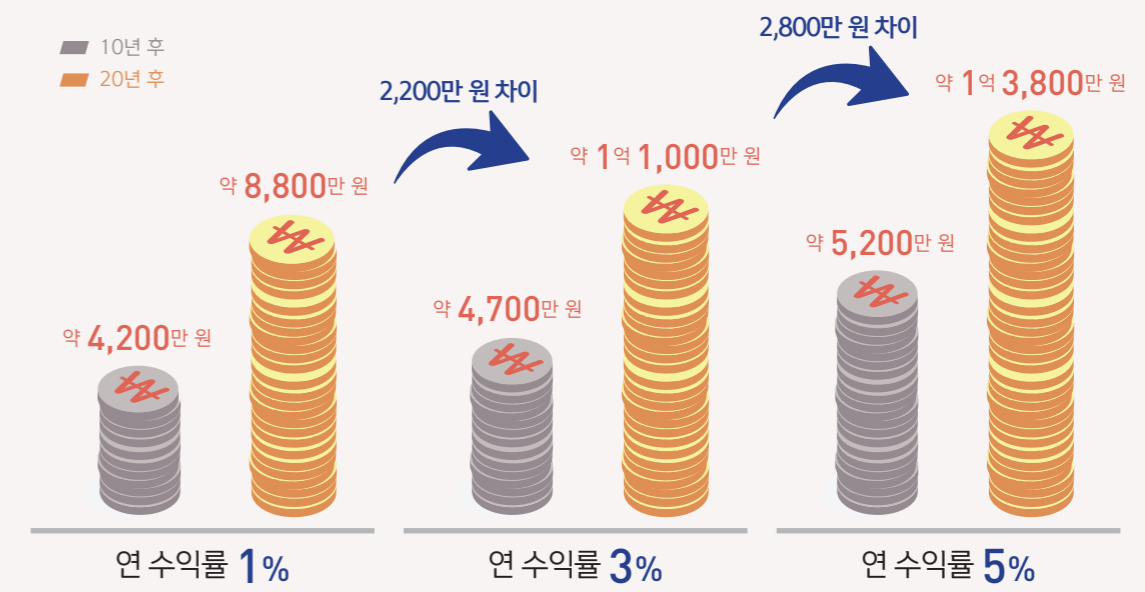
원금이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세후 실질소득이 마이너스에 가까운 예·적금의 수익률에 만족하겠는가? 아니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가겠는가?

흔히 투자의 과정을 눈사람 만들기에 비유한다. 커다란 눈사람 만들기를 상상해 보자. 어린이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스노우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무리 커다란 스노우볼도 처음에는 아이의 주먹보다 작은 눈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금씩 굴러 나가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커질수록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종잣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빨리 돈이 불어난다.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키워가야 한다.

연 400만 원씩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10년 후, 20년 후 계좌의 잔고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익률이 1%인 경우 10년 후 잔고는 약 4,200만 원, 20년 후 잔고는 약 8,800만 원이다. 연 수익률이 3%인 경우 10년 후 잔고는 약 4,700만 원, 20년 후 잔고가 약 1억 1,000만 원이 된다. 연 수익률이 5%인 경우 10년 후 잔고는 약 5,200만 원, 20년 후 잔고가 약 1억 3,800만 원이 된다.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잔고 금액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복리효과 때문에 원금이 같아도 수익률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원금이 같아도, 투자에 따라 다른 수익

연 400만 원씩 납입 / 납입 기간 10년, 20년 / 수익률 1, 3, 5%인 경우(세전)



✓ 자신의 연금 통장을 확인하라 다른 상품으로 계좌이전도 가능하다

재테크를 할 것인가, 연금 준비를 할 것인가?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연금 통장이 있다. 만약 운용이 불가능한 통장이라면
운용 가능한 통장으로 '계좌이전' 하면 된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 교육, 집 장만, 부모님 용돈 등 돈 나갈 일은 많다 보니 은퇴 준비는 늘 2순위로 밀리게 마련이다. 재테크와 은퇴 준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연금 통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 은퇴 준비를 위해 납부한 돈으로 금융 상품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연금도 모으고 투자도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는 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개인형 IRP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 근로자가 은퇴 전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하면서 상품운용도 하다가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자유롭게 적립하면서 펀드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연금 상품.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도록 설정이 가능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다.



만약 아직 연금 통장이 없다면 투자 운용이 가능한 통장으로 시작해 보자. 이미 가입한 경우 본인 계좌를 확인해서 투자운용이 불가능한 계좌라면 '계좌이전*'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신탁 가입자라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 시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개인형 IRP 간의 계약 이전도 가능하다.

* 계좌이전 : 2019년 11월 25일부터 연말 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 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연금 통장



✓ 연금 통장의 이점을 활용하라 세금 절감에 복리효과가 크다

연금 통장에서는 매년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돈, 과세이연으로 생긴 여윌돈까지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커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만큼 복리효과가 더 크다.

연금계좌는 연금 목적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금 통장이 가진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세액공제' 혜택이다. 즉 세액공제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는 해마다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3.2~16.5%를 연말정산 시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즉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금저축펀드는 연 납부금액 400만 원, 개인형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따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13.2~16.5%
환급 가능

펀드 가입자라면 개인형 IRP를 추가 가입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2020년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에게는 900만 원까지 납입한도 확대 인정)

둘째, '과세이연' 혜택이다.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금 통장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정기예금과 비교해 볼 때 정기예금은 만기 때마다 이자에 대해 무려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계좌는 과세이연으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셋째, '저율과세' 혜택이다. 즉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통장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고율의 이자소득세(15.4%)가 아니라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해 준다.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이연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세금 환급받은 돈, 과세이연으로 생긴 여윌돈까지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잣돈이 커지고 종잣돈이 커진 만큼 수익도 높아진다. 또 운용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가 극대화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시 세 부담도 적다. 그러니 연금 통장이야말로 투자를 위한 최적의 통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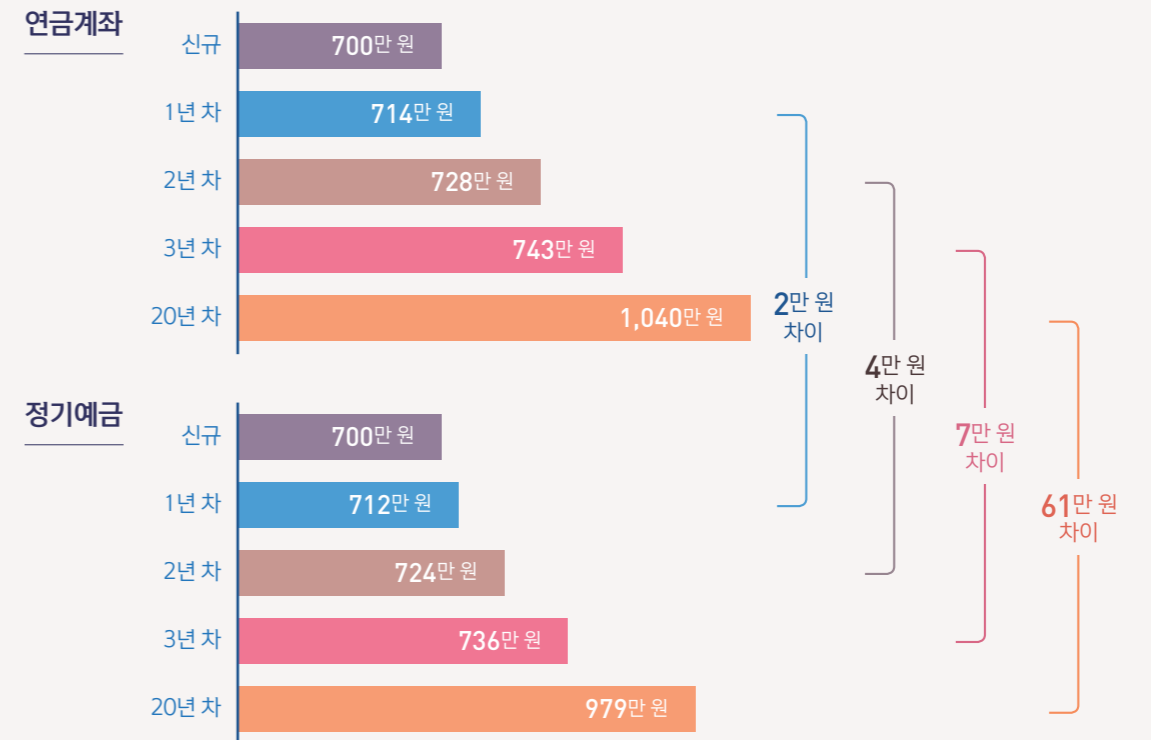
개인형 IRP 세액공제액

| 대상 | 세액공제율 | 연령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 700만 원 900만 원 | 최대 1,155,000원 최대 1,485,000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 700만 원 900만 원 | 최대 924,000원 최대 1,188,000원 |

* 연금저축계좌는 단독으로 납부금액 400만 원까지, 개인형 IRP와 통합해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은 200만 원 추가 인정). 단 개인형 IRP는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ISA 만기금액 내 개인형 IRP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1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및 정기예금 수익 비교

(원금 700만 원, 연 수익률 2%,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및 연금계좌 수수료는 제외)



대박의 꿈, 텅 빈 계좌로 끝나다



“연금계좌에 있는 돈으로 세액공제만 받지 말고, 그 계좌에서 투자를 하라,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투자를 하면 복리 효과로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 말씀이군요?”

“그렇지”

“개인이 직접 운용관리할 수 있는 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가 없으면 계좌이전도 가능하다는 거구요.”

썬 박사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가슴에 새긴 주린이 대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드디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한달살이의 궁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아 희망으로 설렘. 마음이 급해졌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빨리 가서 실행에 옮겨야겠어요!”

그가 일어서 달려 나가자 썬 박사는 소리쳤다.

“이보게. 비밀은! 비밀은...”

그러나 주 대리에겐 썬 박사의 목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다. 급하게 나가는 주 대리의 등 뒤에 대고 썬 박사는 중얼거렸다.

“비밀은 지금부터라네. 이제부터가 본론인데...쫄쫄. 행운을 비네.”

“적은 금액도
장기투자를 하면
복리효과로
수익이 커진다네.”



집에 돌아온 주 대리는 비참한 고지식 선배의 전철은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펜트하우스에서 자신만만하게 웃던 투자신 선배를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당장 A사에서 방치했던 개인형 IRP를 주거은행의 개인형 IRP 계좌로 계약이전했다. 원금의 손실이나 불이익은 없었다. 우선 B사에 이체받을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이전을 신청만 하면 되었다. 기존의 가지고 있던 개인형 IRP 계좌는 수년간 적립해온 덕에 제법 종잣돈이 모아져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블랙스완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다. 2020년 1월 중국의 일인 줄만 알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더니 다음달에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 소식이 들려왔다.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 있었고 주 대리도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운명처럼 명문대학에서 재무 쪽을 전공한 엘리트 동료와 퇴근길에 우연히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엘리트 동료는 악마처럼 주 대리에게 속삭였다.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어. 기회는 지금이야.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동료의 말을 듣고 일확천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주 대리는 계좌이전 연금계좌에 모인 종잣돈에다가 신용대출,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더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처음엔 샐러리맨으로서 꿈에나 만져볼 직한 금액이 계좌의 평가손익 창에 딱하니 떠올랐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국내외 성장주가 대폭락했다. 2021년 들어 잠시 신년 랠리가 나오는가 싶더니만 잠시뿐 다시 급락과 긴 조정! 더구나 성장주는 맥을 못 추고 이른바 가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켜보던 주 대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 모든 물량을 매도해 버렸다.

그리고 그 돈을 이번엔 가치주에 모두 쏟아부었다.

가치주로 옮겨간 주 대리. 그러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치주로 옮겨탔는데, 이번엔 가치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예측불허의 시장에 주 대리는 롤러코스터 타듯 울렁거렸다. 급기야 델타 변이 대유행이 터져버리자 다시 순간 급락장이 왔다. 계좌는 처참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눈물의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패닉이 그의 계좌와 영혼까지 삼켜버렸다. '이.. 이럴 수는 없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서야 다시 쏘 박사가 떠올랐다. 생각해 보니 쏘 박사가 마지막에 뭔가 더 하려던 말이 있었던 거 같은데...어쩌면 그 말에 해답이 들어 있을지도 몰랐다. 다시 찾아간 쏘 박사는 주 대리의 사연을 말없이 듣더니 입을 열었다.

“결국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버렸군. 그러니 한꺼번에 박살이 나는 것이지.”

“박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계좌도 인생도 박살이 났어요!”

드디어 박사의 입에서 지난번에 주 대리가 놓쳐버린 쏘의 비밀이 베일을 벗고 나오기 시작했다. 주 대리는 쏘 박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진지하게 경청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버렸군. 그러니
한꺼번에 박살이 나지.”



Smart
스마트한 분산 투자

03.

스마트하게 분산 투자하라 나만의 작전지도가 필요하다



“투자가 왜 위험한 줄 아냐? 시장 자체가 예측불허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치밀한 작전을 세워야 해. 그 작전지도가 포트폴리오라네.”

“포트폴리오요? 그게 뭔데요?”

“자산배분 전략이지. 자네의 포트폴리오 안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투자자산을 담는 거야. 무턱대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서로의 위험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자산들을 말이야.”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군요. 스마트하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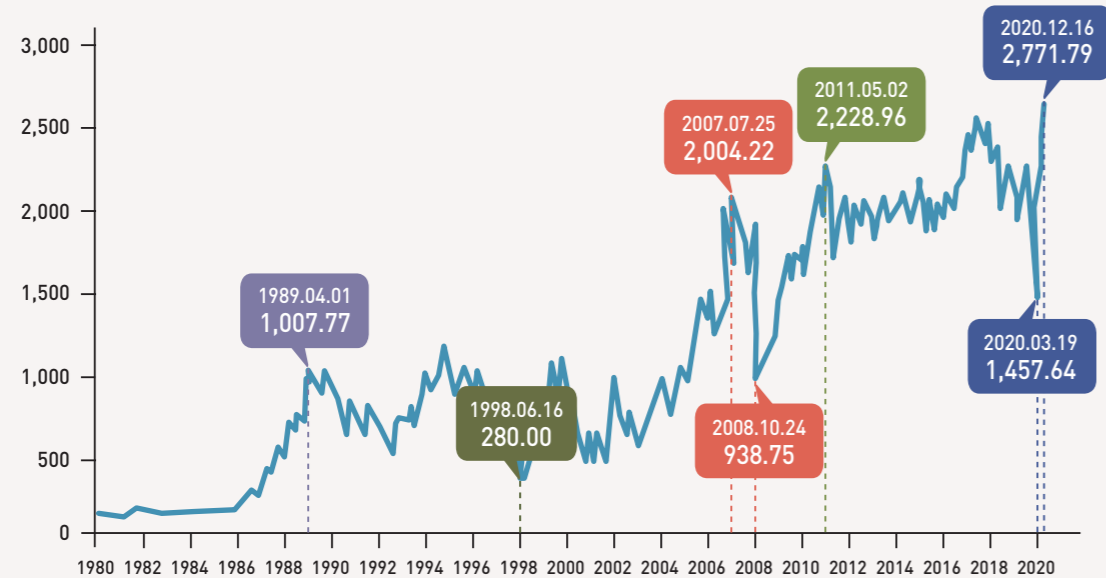
✓ 시황은 변화무쌍하다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시장은 변화무쌍한 날씨와도 같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상황인식이야말로 성공투자의 출발점이다.

주린이의 투자 일상은 “팔 걸.” 혹은 “살 걸.” 하는 후회의 연속이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널을 뛰듯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울렁증마저 생길 지경이다.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시장의 변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16년 개당 1,000달러대에 불과했지만 2017년 2만 달러를 육박하다가 2019년 4,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끝인가 했더니, 2020년 결국 2만 달러를 뚫고 급기야 2021년 4월에 7만 달러까지 뚫어버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에 반 토막이 났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거품이 잔뜩 끼었다가 붕괴하기를 반복한다. 갑작스런 위기가 닥치면 주가는 폭락한다. 1995-2000년 닷컴 버블(dot-com bubbl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러한 예다. 또 2001년 9·11 테러나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블랙스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코스피 시장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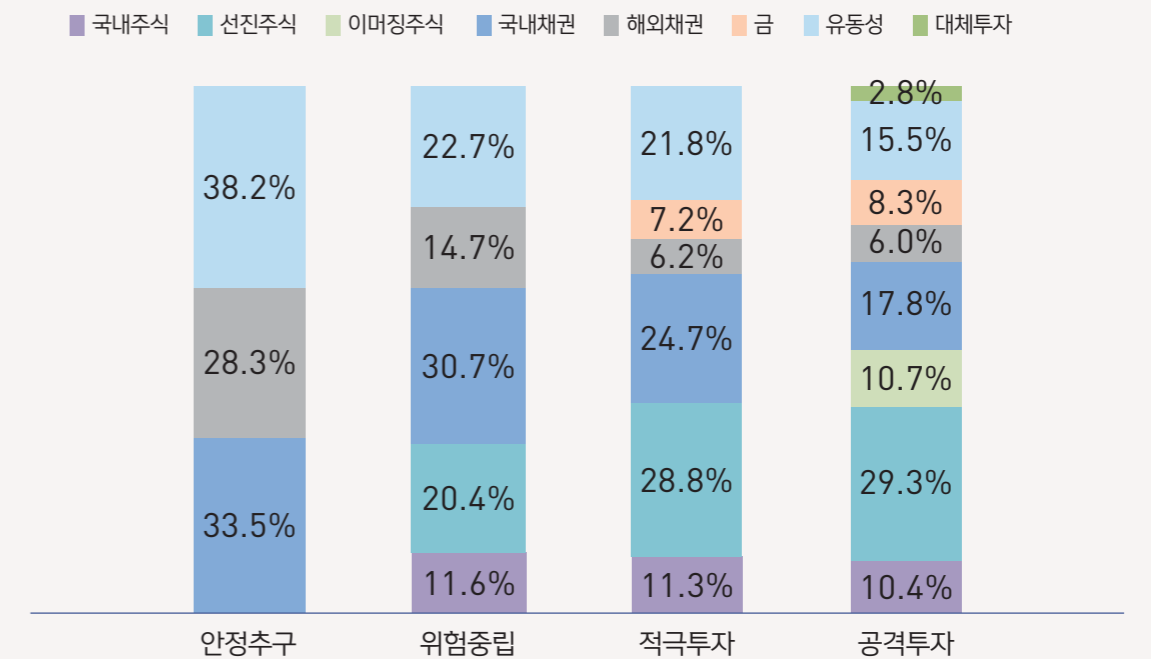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라 분산 투자로 리스크 최소화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 또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코위츠(Markowitz)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왔다.

미국 아마존에서 일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이슨 디볼트(Jason Debolt)’는 2013년 단돈 7.5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처음 매입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장기투자자로서 2021년 1월 131억 원의 자산을 벌며 조기은퇴를 선언하며 파이어족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런 행운의 주인공은 아주 드물다. 현실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없는 성공투자를 할 수 있을까?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산배분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한 가지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월가의 오랜 격언처럼 여러 투자 자산을 섞어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느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개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보자.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예시



(출처: 2021년 5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제공 자산배분전략)

*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금 등 다양한 대체자산이 있다.

04.

계속해서 리밸런싱하라 리스크가 줄고 수익은 커진다



✓ 포트폴리오 총수익을 관리하라 개별자산 관리보다 효율적이다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변동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변동 폭이 줄어들어 개별자산에만 집중 투자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하단의 ‘자산군별 연간수익률’ 자료를 보면 포트폴리오 투자의 수익률이 개별자산의 수익률보다 더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해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자산은, 부동산, 신흥국, 채권 등으로 변화무쌍하다. 각 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크게 발생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보면 그 변동폭이 다른 자산에 비해 적은 데다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의 힘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투자 시에는 개별자산의 손실과 이익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개별자산 수익과 손실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포트폴리오 투자에 성공하려면 서로 움직임의 방향이 다른 자산을 담아야 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으로만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 채권으로만 분산하거나 여러 주식 종목으로만 분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산이 아니다. 서로 움직임이 다른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안배한다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포트폴리오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산군별 수익률 비교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최근 10년 수익률(평균) | 최근 10년 변동성(평균) |
|----|--------------------|-------------------|--------------------|-------------------|--------------------|--------------------|--------------------|------------------|-------------------|-------------------|
| 1 | 소형주 41.31 | 부동산 32 | 부동산 4.48 | 소형주 26.56 | 신흥국 37.75 | 현금 대체 1.82 | 대형주 31.49 | 신흥국 18.69 | 대형주 9.88 | 부동산 23.81 |
| 2 | 중형주 33.5 | 대형주 13.69 | 대형주 1.38 | 중형주 20.74 | 선진국 25.62 | 채권 0.01 | 중형주 26.2 | 대형주 18.4 | 중형주 9.55 | 신흥국 21.76 |
| 3 | 대형주 32.39 | 중형주 9.77 | 채권 0.55 | 대형주 11.96 | 대형주 21.83 | 부동산 -4.22 | 부동산 23.1 | 중형주 13.66 | 소형주 9.44 | 소형주 19.97 |
| 4 | 선진국 23.29 | 포트폴 리오 7.69 | 현금 대체 0.03 | 원자재 11.77 | 중형주 16.24 | 대형주 -4.38 | 소형주 22.78 | 소형주 11.29 | 포트폴 리오 7.11 | 중형주 18.3 |
| 5 | 포트폴 리오 13.35 | 채권 5.97 | 포트폴 리오 -0.28 | 신흥국 11.6 | 포트폴 리오 14.15 | 포트폴 리오 -5.06 | 선진국 22.66 | 포트폴 리오 9.9 | 신흥국 6.95 | 선진국 17.48 |
| 6 | 부동산 1.22 | 소형주 5.76 | 선진국 -0.39 | 포트폴 리오 7.22 | 소형주 13.23 | 소형주 -8.48 | 포트폴 리오 19.07 | 선진국 8.28 | 부동산 5.78 | 원자재 16.48 |
| 7 | 현금 대체 0.05 | 현금 대체 0.02 | 소형주 -1.97 | 부동산 6.68 | 부동산 3.76 | 중형주 -11.08 | 신흥국 18.9 | 채권 7.51 | 선진국 4.97 | 대형주 15.12 |
| 8 | 채권 -2.02 | 신흥국 -1.82 | 중형주 -2.18 | 채권 2.65 | 채권 3.54 | 원자재 -11.25 | 채권 8.72 | 현금 대체 0.54 | 채권 4.49 | 포트폴 리오 9.78 |
| 9 | 신흥국 -2.27 | 선진국 -4.48 | 신흥국 -14.6 | 선진국 1.51 | 원자재 1.7 | 선진국 -13.36 | 원자재 7.69 | 원자재 -3.12 | 현금 대체 1.16 | 채권 3.19 |
| 10 | 원자재 -9.52 | 원자재 -17.01 | 원자재 -24.66 | 현금 대체 0.26 | 현금 대체 0.82 | 신흥국 -14.25 | 현금 대체 2.21 | 부동산 -11.2 | 원자재 -4.01 | 현금 대체 0.47 |

(출처 : 신한은행, Boyd wealth management)

✓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라 더 안전한 투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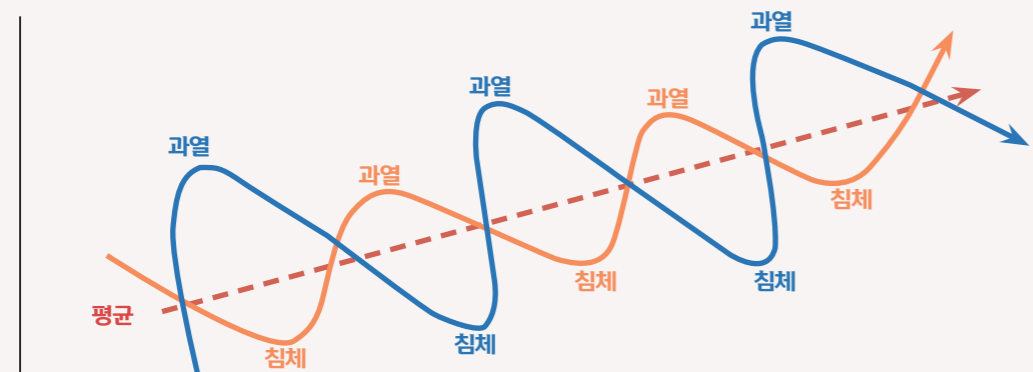
한번 설계한 포트폴리오는 영원한 게 아니다. 정기적으로 각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재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해주어야 더 안전해지고 수익률도 올라간다.

2021년 초 3000을 돌파한 코스피가 그 후 미끄러지며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은 데에는 연기금의 리밸런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로 국내주식 비중이 높아진 연기금이 목표 비중을 맞추느라 매물 폭탄을 쏟아낸 것이다. 이처럼 '리밸런싱(rebalancing)'이란, 운용하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재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시 목표 비중에 따라 자산배분을 하는데, 그후 자산별 가격 변화에 따라 어떤 자산의 비중은 커지고 어떤 자산의 비중은 작아져서 목표 비중에서 벗어나곤 한다. 이런 경우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일부 팔아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매수하여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다. 고가에 팔고 저가에 매수하니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매매가 이뤄져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리밸런싱 예시



리밸런싱 원리



Tip. 포트폴리오 투자, 이렇게 하라

1. 나만의 기준을 정한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느라 급상승 시 추격 매수하거나 급하락 시 패닉 셀링을 하지 않고 균형 있는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나의 투자성향, 목표 수익률, 투자할 자산의 종류, 선택한 자산별 투자 비중, 리밸런싱 기준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해 둔다.

2.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 및 종목을 선택하고 분산 투자한다.

국내 주식, 해외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자산(금, 부동산 등), 현금성 자산 등 투자자산 중에서 나의 목표수익률에 적합한 자산을 선택하고 정한 목표 비중에 맞게 자산배분을 하여 분산투자를 실행한다.

3. 움직임이 상반된 자산으로 구성한다.

투자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움직임이 상반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 자산이 올라갈 때 반대로 내려가고, 내려갈 때 반대로 올라가는 식으로 서로 움직임이 상반된 자산에 투자해야 리스크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국채를 함께 투자하는 게 좋다.

4. 정한 주기에 따라 리밸런싱을 실행한다.

적절한 리밸런싱 주기를 미리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실행한다. 자산을 사고팔 때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리밸런싱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또 배분 주기가 너무 길면 리밸런싱의 효과가 반감된다. 보통 6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5. 여윌돈 추가 투입 시, 시장의 큰 변동 시 리밸런싱을 한다.

정기적인 리밸런싱 시기가 아니더라도 특정 비율을 넘어가면 리밸런싱을 해준다. 특히 여윌돈을 추가 투입하거나 시장에 큰 변동이 오는 경우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여윌돈 투입 시에는 새로 투입하는 여윌돈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더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조금 덜 매수하는 식으로 비중을 조절한다. 또 코로나19 등과 같은 시장 급변 시에는 목표 비중을 재검토하고 시장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한다.

6.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장기 투자한다.

05.

장기투자로 진검승부하라 끝을 봐야 돈을 번다

“세 번째 성공투자 비결은 ‘장기투자’라네. 분산 투자를 하고 리밸런싱을 잘해준다고 해도 투자 기간이 짧으면 수익률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네.”

“하지만 10년 20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행동장치가 필요하지. 바로 연금계좌라네. 연금계좌는 중도해지하면 손실이 있지만 유지하면 많은 혜택이 따르지. 당근과 채찍이 공존한다고나 할까.”

“아 그렇군요. 연금계좌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봐야겠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잊지 말게. 투자란 시간을 사는 것이라네!”

✓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라 연금계좌에는 행동장치가 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가능성과 손실의 크기가 줄어든다. 단기적인 성과나 손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고 장기투자를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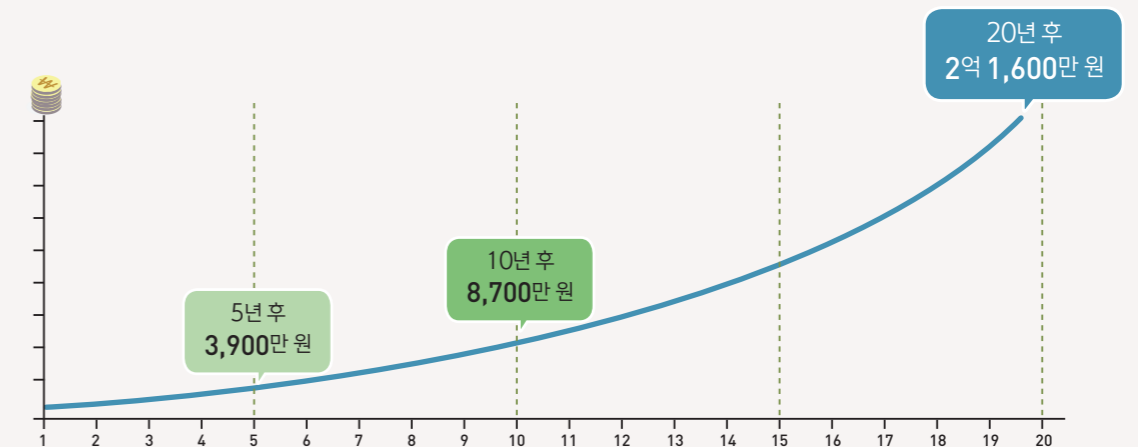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다. 복리 효과로 수익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연 700만 원씩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 4% 수익을 거둔 경우를 생각해 보자. 5년 투자한 사람은 3,900만 원이 되고, 10년 투자한 사람은 8,700만 원이 되고, 20년 투자한 사람은 무려 2억 1,600만 원이 된다. 그것은 운용 원금이 시간의 길이만큼 3,500만 원,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운용수익은 늘어난 원금 전체에 대해 이자가 4%씩 붙어 나가면서 400만 원, 1,700만 원, 7,600만 원으로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더 복리 효과가 쌓인 결과이다.

그러나 자신만의 힘으로 장기투자를 끝까지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급락이 오면 패닉 셀링해 버리거나 수익이 좀 나면 차익 실현을 해버리기 일쑤다. 그래서 경제심리학에서는 ‘행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람의 순간적인 행동을 억제해 주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가 연금계좌다. 연금은 은퇴자산을 위한 상품인 만큼 은퇴 시까지 장기 보유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대로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지하기보다는 투자를 계속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다.

장기투자의 효과

연금계좌에 연 700만 원 입금, 연 수익률 4%

투자 기간에 따른 투자 결과



✓ 중도해지는 되도록 피하라 끝까지 가야 혜택이 크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가 부과된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16.5%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타소득세를 감안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저율과세 적용). 그러므로 연금계좌는 중도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장기투자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중도해지 vs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세금 비교

| 재원 | 과세방법 | |
|-----------------------------|---------------------------------|---|
| | 일반 해지 | 법정 부득이한 사유 ¹⁾ |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 과세제외 |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 60~70%, ²⁾ 분리과세) |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3.3%~5.5% ³⁾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1) 법정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①천재지변 ②사망/해외이주 ③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④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⑤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2)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60% 원천징수(40% 감면)

3)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꼭 기억하자!!

개인형 IRP 계좌 안에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이 함께 있다면, 이를 분리해서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가입자부담금까지 모두 한번에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목적이라면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다시 시작하자!’

쉴 박사를 만나고 돌아온 주 대리는 자신의 잘못된 투자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누구나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성공 투자의 길을 찾아가면 된다. 진짜 실패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에 투자 자체를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 그런 도망자는 되지 말자고 그는 다짐했다.

‘아직 젊다. 내겐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이 있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로 한 주 대리는 손절하고 남은 금액에다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연금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원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절히 안배했다. 또 ETF 상품을 적극 활용했는데, 국내상장 ETF 중 해외주식 ETF를 적절한 비중으로 배분하고, 매달 일정 금액은 TDF에 투자했다. 계좌관리도 철저히 해나갔다. 매달 자신의 계좌를 점검하고 6개월에 한 번은 리밸런싱을 해주었다.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미련 없이 팔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종목을 더 매수했다. 이렇게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을 기계적으로 해나갔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처음에 세운 원칙대로 실행한 것이다. 물론 쉽지 않았다. 아들 녀석 교육비가 늘어나고 집을 넓히는 등 돈이 필요한 적이 많았지만 연금계좌만큼은 노 터치! 손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몇 번의 시장 위기가 지나갔다. 그때마다 시장은 폭락했지만 주 대리는 단기적인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투자의 원칙을 지켜나갔다. 또 주식형과 채권형을 균형 있게 배분해 두었기에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포트폴리오 전체로서는 손실이 나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승진을 거듭해서 주 대리는 주 상무가 되었다.



‘아직 젊다.
내겐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이 있어!’

은퇴할 날이 점점 다가오던 즈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외조카 녀석인 ‘노대박’이 주 상무를 찾아왔다. 노대박은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늘 투자정보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녀석이었다. “삼촌은 투자를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큰돈을 잃어 본 다음에 재기에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비결이 뭐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네.”

“그게 다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노대박은 시시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주 상무가 말을 이었다.

“첫째, 스마트한 분산 투자,
둘째, 지속적인 리밸런싱,
셋째, 롱텀의 장기투자.
이 3가지가 나의 원칙일세.”



“자산을 분산하고,
리밸런싱하고,
장기투자하라!”

그러나 노대박은 주 상무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위기가 닥쳤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 물난리가 났는데, 중국의 큰 댐이 무너지자 전염병이 창궐하고 급기야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시장은 다시 폭락했다. 노대박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 상무를 찾아왔다. “삼촌. 큰일 났어요. 다 날렸어요! 신용대출까지 왕창 썼는데, 이젠 끝장이에요.” 노대박을 보니 젊은 날의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지난번에 충고했잖나. 분산하고 리밸런싱하고 장기투자하라! 그러나 자네는 충고를 무시하고 주식시장에만 그것도 한두 종목에 모든 돈을 쏟아 넣었어!” “아 잘못했어요. 이젠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대박아. 투자에 대박은 없는 거네. 앞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올 수 있겠나?” “그럼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재기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주 상무는 젊은 시절에 쉴 박사가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의 비밀을 자기에게 전해준 것처럼 자신의 투자 비결을 조카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06.

투자성향에 따라 바이 앤 홀딩! 그래야 실패가 없다

“술의 3가지 원칙! 첫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설계, 둘째, 정기적인 리밸런싱, 셋째, 장기투자를 기억하게. 이 3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네.”

“연금투자!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연금투자를 할 때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해. 우선 계좌에서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별 비율을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그리고 투자를 실행하는 거야. 종자돈이 없다면 적립식으로 일단 시작하게.”

“종목은 어떻게 선택하죠?”

“자네의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네. 정답은 없어. 단 서로 움직임의 방향이 다른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네.”

✓ 투자성향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라 연금투자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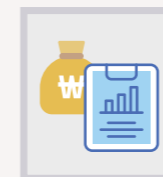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때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 배당상품의 비중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 특히 서로 가격의 움직임이 상반된 상품을 담아야 한다.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한 ‘연금투자 관리’란, 연금계좌의 금액을 세액공제만 받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해마다 세액공제도 받고 동시에 수익도 생기니 일거양득이다. 연금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은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매칭형 펀드, 그리고 주식·채권·혼합형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상품 등이 있다. 상품에 따라 안전 및 위험도가 다르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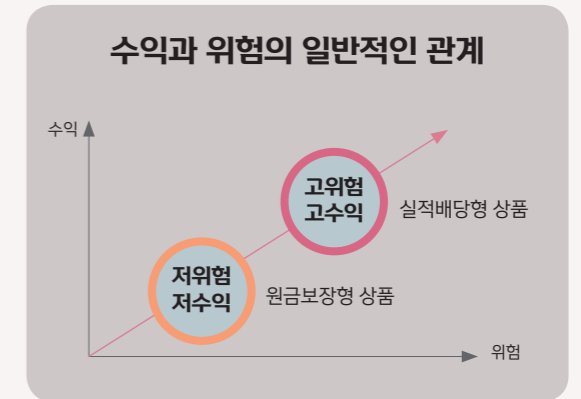
연금계좌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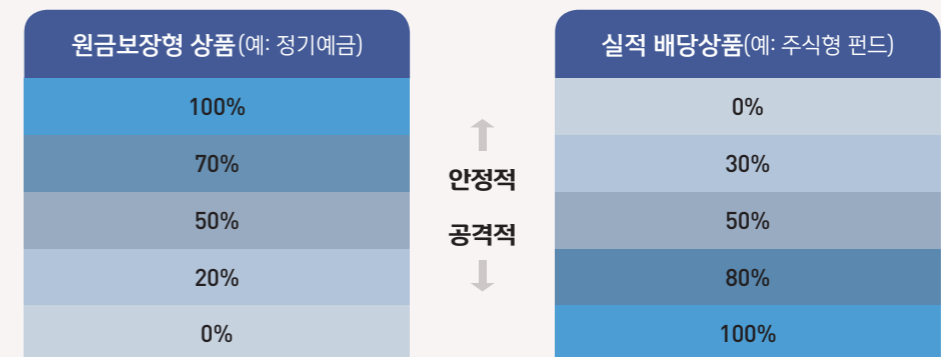
- 원리금 보장상품**
- 저축은행 정기예금
 - 시중은행 정기예금
 - ELB(파생결합사채)



- 실적 배당상품**
- 채권형 펀드(채권 100%)
 - 혼합형 펀드(주식비중 40% 이하)
 - 주식형 펀드(주식비중 60% 이상)
 - TDF(Target Date Fund)
 - 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성향과 연금투자 상품 비중



07.

바쁘다면 TDF 하라 알아서 다 해주니까



✓ TDF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라 국내외 분산투자로 안전하다

TDF는 나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산배분부터 리밸런싱까지 투자를 알아서 다 해주는 상품이다. 안정성과 수익률이 좋아서 갈수록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전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력과 계좌 운용 능력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투자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투자에 집중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있다. 바로 TDF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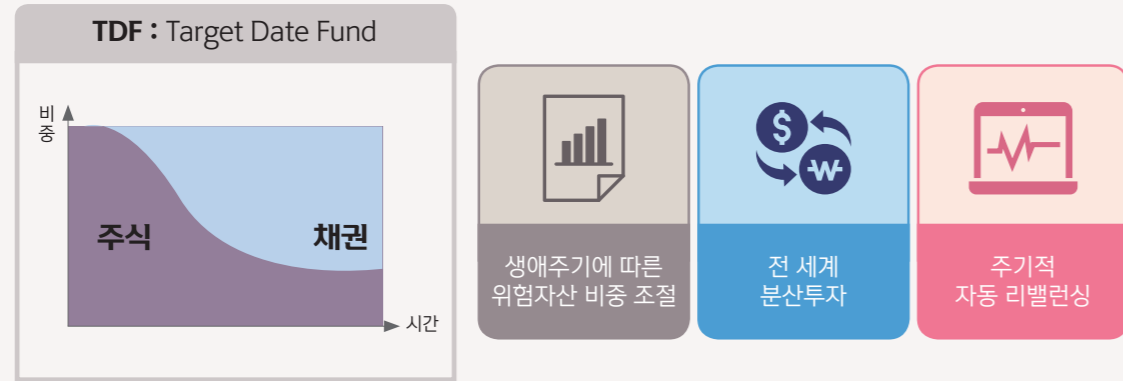
‘TDF(Target Date Fund)’란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해 주는 자산배분 펀드이다. 즉, 내가 직접 투자를 설계하고 리밸런싱하는 게 아니라 상품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 그것도 나의 은퇴 시점을 타깃 데이트로 맞춰서 말이다. 목표 시점은 상품 가입 시 설정하는데, 가입 당시 정한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를 더 안전한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젊은 시절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서서히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TDF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28.39%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TDF가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 투자상품인 만큼 손실 위험은 있다. 운용사별 TDF 상품 특징이 다르니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TDF는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수익률의 차이는 물론 수수료 차이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TDF 상품 예시(신한자산운용)

| | 설정 시점 | 주식투자 비중 | 특징 | 주요 대상 |
|------------|----------|---|--|--|
| 마음편한 TDF | 2017. 6. | 운용 초기: 80% 수준 은퇴 시점: 20% 수준 | 투자 자산에 따라 환율전략을 달리 가져감으로써 장기적 변동성 관리 | 장기투자 관점 환차익 기대 고객 |
| 안심 지속형 TDF | 2020. 6. | 운용 초기: 80% 수준 은퇴 시점: 33% 수준 은퇴 후 30년: 1% 수준 | 은퇴 시점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30%로 낮추고 은퇴 이후 30년까지 나머지 위험 자산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운영방식 | 단기환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고, 은퇴시점 이후에도 자산배분을 원하는 고객 |

TDF 자산배분 및 목표 시점



출생연도 1980 + 예상 은퇴연령 55 = TDF 2035

Tip. TDF, 이렇게 다르다

1. 연금투자 관리에 최적화된 장기투자 상품이다.

연금 가입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 가입자가 자산을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2. 은퇴 이후 투자도 가능하다.

목표 날짜에 납입이 끝나는 '퇴직 목표형'과 목표 날짜 이후에도 운용되는 '퇴직 후 소득추구형' 두 종류가 있다. 퇴직 후 소득추구형은 은퇴 이후에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국내와 해외까지 다양한 분산투자가 이뤄진다.

연령에 따라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자산에 분산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자동으로 자산배분 및 리밸런싱을 해준다.

시간이 없어도 투자를 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산배분부터 리밸런싱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08.

미국 주식 관심 있다면 ETF 세제혜택이 따라온다



✓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ETF 연금계좌에서 거래하면 유리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데다 운용보수가 적고 소액으로 국가나 산업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인덱스펀드에 주식의 장점이 더해진 ETF에 투자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펀드는 매수·환매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또 운용보수가 저렴하고,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무엇보다도 ETF를 통한 연금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일반계좌에서는 분배금 또는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그런 세금 부담이 없다.

단,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상품만 가능하고 해외상장 ETF 투자는 불가능하다. 대신 국내 상장이면서 해외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ETF 거래의 세금 알아보기(일반 계좌, 2021년 기준)

| 과세 | 국내상장 ETF | | 해외상장 ETF |
|--------------|------------------|-------|----------------|
|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 X | 15.4% | 22% |
| 분배금(배당금) | 15.4% | 15.4% | 15% (미국 기준)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X (단, 배당금은 0) | 0 | X |

(단, 해외상장 ETF는 250만 원까지 양도세 공제)
※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금계좌 투자가 특히 유리하다.

연금계좌 대표 해외 ETF

| 종류 | 특징 |
|-------------|--|
| 미국 S&P500 | 미국의 500개 우량주에 투자(경기 민감 가치주 회복 기대) |
| 미국 나스닥100 | 나스닥증권에 상장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업종 대표주 100개에 투자 |
| 차이나 항생테크 | 중국의 30개 혁신기업에 투자(알리바바, 레노버 등 빅테크기업 포함) |
|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매출 50% 이상의 글로벌 기업 30개에 투자 |

有돈장수 50년, 투자는 계속된다





은퇴를 앞둔 주 상무는 자신의 투자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점은 투자에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쓸 투자에 다시 도전한 것이다. 비록 젊은 시절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장기투자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곧 은퇴하면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도 간단치가 않았다.

주 상무는 다시 한번 쓸 박사를 찾아갔다. 인공지능 박사인 그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전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딥러닝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되어 있을 뿐, 세월의 흔적은 없었다. 주

상무만이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박사님 덕분에 성공 투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으로 연금 수령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우선 이걸 보게.”

쓸 박사는 다시 한 번 HMD를 주 상무에게 건넸다. 그것을 착용하고 눈을 뜨니 기억도 가물가물한 얼굴, 바로 투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의외의 풍경이 펼쳐졌다.

‘아니 저건!’

주 상무는 깜짝 놀랐다.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줄 알았던 투자신 선배가 세금 문제로 허둥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자신 선배가 소리치는 게 들렸다.

“이를 어찌란 말인가. 연금 수령액이 고작 연 1,200만 원 넘었다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버리다니. 이 세금을 다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허둥대는 투자신 선배를 보고 주 상무는 다시 한 번 연금 수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쓸 박사에게 연금 수령의 비밀을 반드시 전수받으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 투자를 통해 은퇴자산을 키워나가리라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으로 연금 수령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09.

연금 수령을 조절하라

종합과세 위험이 있다



“연금 수령을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절세효과가 클까요?”

“우선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게.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해.”

“아!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연금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먼저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던 돈부터 인출된다네. 이 돈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둘째 퇴직소득, 셋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된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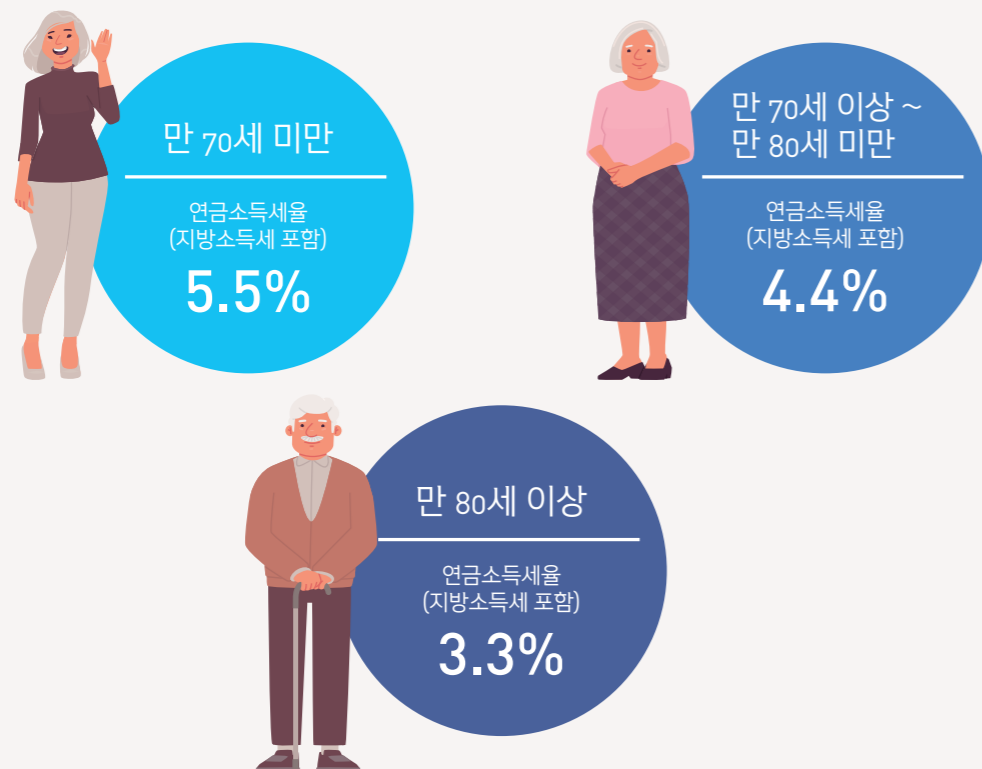
✓ 연금 수령은 최대한 천천히! 늦게할수록 저율과세다

연금 수령 시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은 은퇴준비를 위한 상품이므로 늦게 수령할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서 상품을 운용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연금을 수령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연금계좌는 그 재원에 따라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과세, 퇴직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가능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늦게 수령할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연금 수령의 조건은 2013년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라면 '만 55세 이후 &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하고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단 퇴직금 입금 시에는 만 55세 이상만 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소득세율



✓ 연금 인출에도 순서가 있다 아는 만큼 세금 절약

연금 인출 재원에 따라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도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진다. 과세 대상이 아닌 재원,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부터 인출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금계좌에는 퇴직금으로 받아 입금한 돈, 본인이 추가 적립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 추가 적립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상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 등 다양한 성격의 돈이 함께 적립되어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되니 확인은 필수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에서 인출되고, 그 재원이 다 소요된 후, 둘째 퇴직금에서 인출되며, 셋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에서 인출된다.

이때 해당 재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도 달라진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대신 비과세 혜택을 주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엔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대신 비과세 혜택,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수령 시 재원에 따른 과세방법

| 재원 | 인출순서 | 과세방법 |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 ① | 과세제외 |
| 퇴직금 | ② | 퇴직소득세 X 60 ~ 70% ¹⁾ , 분리과세 |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③ | 3.3 ~ 5.5% 세율 ²⁾ 로 과세, 분리과세 ³⁾ |

1)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60% 원천징수(40% 감면)
2)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 사적연금 (IRP +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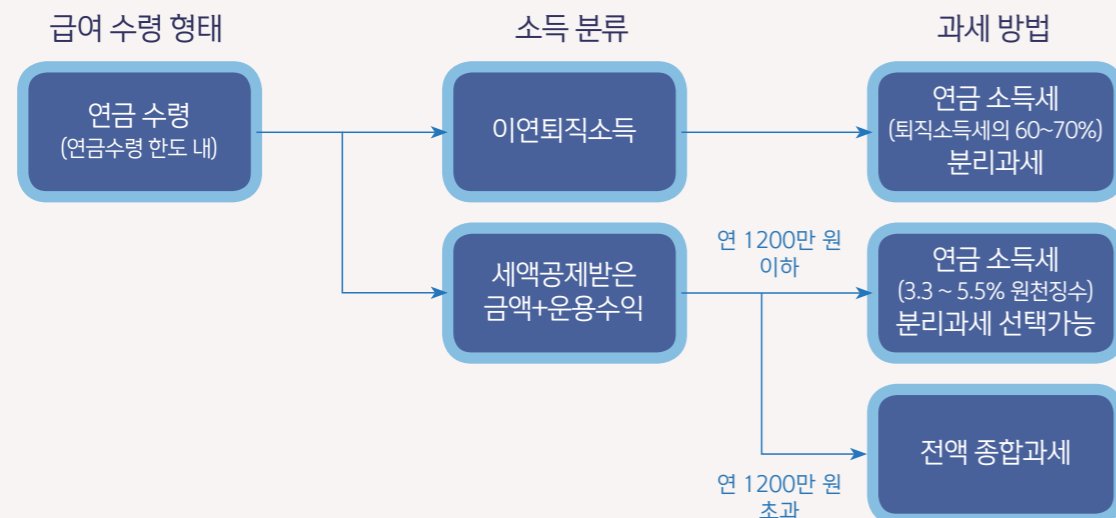
✓ 연 1,200만 원 미만 수령하라 초과 시 종합과세로 합산된다

사적연금 연간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된다.
초과분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 전부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므로 세 부담이 커진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 수령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즉, 연금 수령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되므로 고소득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기간을 늘려서 조절하는 게 좋다. 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의 수령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연 수령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연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 연금 종류 | 한도 적용 | 비고 | |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포함되지 않음 | 공적연금 | |
| 퇴직연금 | 퇴직금 | 포함되지 않음 | |
| | 추가적립금 (개인형IRP 등) | 포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만 대상) | 세제적격 |
|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 포함되지 않음 | 세제비적격 |
| | 연금보험 | 포함되지 않음 | |



1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라!



✓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라 연기연금부터 조기수령까지

3층 연금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본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임의가입, 추납, 조기수령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자기가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만큼 가입기간 중에 월보험료를 최대한 높여 수령액을 늘려두는 것이 좋다. 추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는 연기연금제도, 임의가입, 반납, 추납 등의 방법이 있다.

연기연금제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 나이를 연기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기연금은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하는 1개월마다 수령액이 0.6%, 1년이면 7.2%씩 늘어난다.

임의(계속)가입

60세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한다. 또 전업주부,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반납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다(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 수령한 경우 반납 불가).

추납

일정기간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매년 6%씩 연금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5년을 조기수령하면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수의 30%나 줄어든다. 더구나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는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 더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내 집에서 살면서 월급 받기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의 은퇴 설계가 부족한 고령자라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내 집에서 살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정이 든 나의 집이 은퇴 후에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효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은퇴 준비가 부족해도 자기 집만 있다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니 믿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까지 수령한 연금액을 주택평가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도 가능하다.

가입조건

1.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부부 중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부부 기준 연소자 기준으로 연금액 결정).
2.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3.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점

1.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을 한다.
2.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이 깎이는 일 없이 100% 수령 가능하다.
3.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정산금보다 그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반대의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4.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점

1.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지급금은 연금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변동이 없다.
2.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는 체감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3. 중도해지 시 지금까지 받은 것들과 이자를 한 번에 반환해야 하며 이후 3년간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붙는다.

“뉴노멀 New Normal”을 즐겨라!

코로나19가 준 쇼크에서 벗어나 세상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노멀이 아닌 새로운 노멀, 즉 ‘뉴노멀 new normal’의 시대다. 시니어들의 삶도 달라지고 있다. 경제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스마트 시니어들이 젊은이보다 더 활기차게 뉴노멀의 중심에 서고 있다. **NEW job**(새로운 일), **Net and Ontact**(온택트 소통), **Robot and AI**(로봇과의 삶), **Minimal life**(금융 미니멀리즘), **ALone**(싱글 라이프) 등 5가지 뉴노멀 시니어 라이프를 소개한다.

III 시니어 라이프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쏟드족의 남다른 시니어 라이프

- NEW job**
- Net and Ontact**
- Robot and AI**
- Minimal life**
- ALone**



NEW
NORMAL



쏟드족의
남다른
시니어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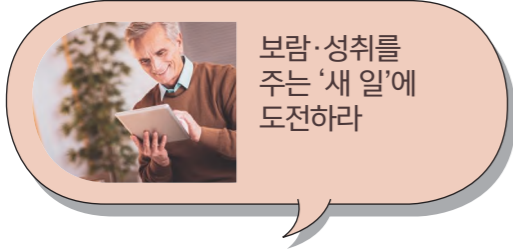
①

NEW job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일을 찾아라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일'을 갖는 것이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에 달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전에 쌓은 경험이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기술의 발달로 '뉴잡'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그 틈새를 노려봄 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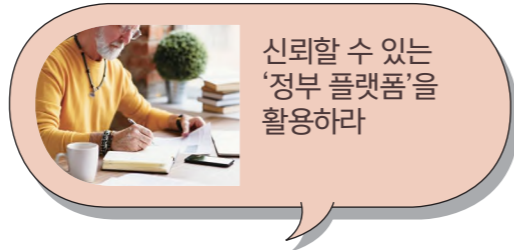


보람·성취를 주는 '새 일'에 도전하라

나만의 '창직'

선부른 창업으로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거나 재취업에 도전했다가 환영받지 못한 채 실망만 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창업이나 재취업이 아닌 '창직'으로 눈을 돌리는 스마트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 분야를 살려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자. 아직도 창창하게 남은 세월 동안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 말이다. 특히 발전된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함께 할 미래 for 5060 신직업'에서 시니어들이 도전해볼 만한 신직업으로 5개 분야 27개 신산업을 들었다.**

- 첨단과학 HIGH-TECH SCIENCE
3D프린팅운영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드론조종사, 드론정비사, 6차산업컨설턴트, 곤충컨설턴트, 관상어관리사
- 농업 및 해양 AGRICULTURE AND OCEANOGRAPHY
귀농귀촌플래너, 도시농업관리사, 레저선박시설전문가, 치유농업사
- 안전·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가정예코컨설턴트, 기업재난관리자, 냉매회수사, 실내공기질관리사, 연구실안전전문가
- 개인서비스 PERSONAL SERVICE
노년플래너, 생활코치, 산림치유지도사, 복지용구전문상담원, 산업카운슬러, 웰다잉전문가, 전직지원전문가, 진로체육코디네이터
- 사업서비스 BUSINESS SERVICE
소셜미디어전문가, 할랄전문가,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신뢰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을 활용하라

플랫폼 활용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초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정부에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을 잘 활용해 보자.

잡케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도록 직무역량 중심 맞춤형 훈련, 직업 선택, 진로설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커리어 관리 서비스다.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고용 관련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진로·적성 검사 △직업정보시스템 △직업훈련 △피보험자 이력 △희망 직종·임금 등의 개인 이력 데이터를 시가 분석하고 사전에 구직자를 준비시킨다. 이러한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50+포털(50plus.or.kr)

서울시50+재단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서,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찾기 등을 지원한다. 각종 다양한 일자리 정보도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서울시50+재단의 대표적인 시니어 일자리사업인 '50+적합일자리사업', '서울50+인턴



십',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은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이다.

'서울50+인턴십 사업'은 50+세대가 새로운 분야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니어 일자리 정보 사이트

| | | |
|-----------|--|--|
| 나라일터 | 인사혁신처 주관 공공기관 채용정보 등재 | www.gojobs.go.kr |
| 잡투게더 |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며, 73,000여 개 회원사의 채용정보 제공 | www.jobtogether.net |
| 워크넷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포털로 장년층 대상 정보만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중장년층 취업 정책과 관련 정보 제공 | www.work.go.kr |
| 알리오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채용공고, 입찰공고 등 제공 | www.alio.go.kr |
|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 소식, 뉴스, 창업지원, 채용정보 등 제공 | job.seoul.go.kr |
| 50+보람일자리 | 50+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 50plus.or.kr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www.kordi.or.kr |
| 한국시니어클럽 | 고령사회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등 활기찬 노후 지원 | www.silverpower.or.kr |
| 대한노인회취업센터 | 무료 노인 취업 상담 서비스 | 대표전화 1577-6065 |
|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직업 상담, 취업 알선 등 정보 제공 | www.vocation.or.kr |

NEW
NORMAL



쏟아지는
남다른
시니어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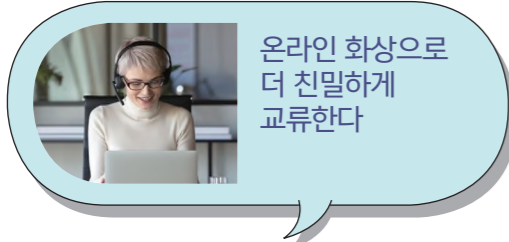
②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을 언택트로 바꾸어 놓았었다. 낯설기만 하던 키오스크(Kiosk, 온라인 가판대)나 셀프계산대 등이 어느새 익숙한 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젠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시대로 한 걸음 더 진화하고 있다. '온택트(Ontact)'란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시니어들에게 온택트는 아직은 낯설지만 잘 활용한다면 나이를 넘어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도구가 될 것이다.

Net and Ontact

온택트로 만나고,
연결하고, 소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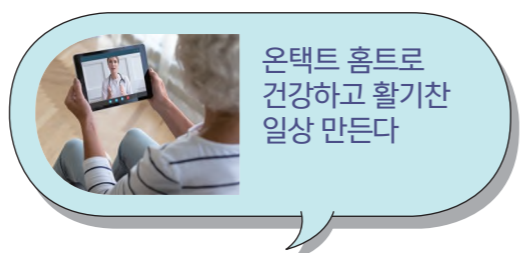




줌 (ZOOM) 화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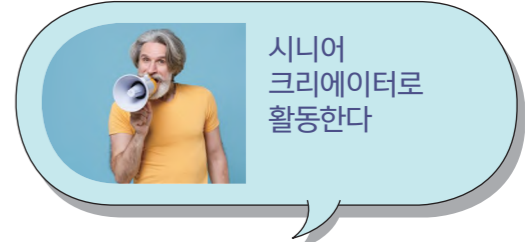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교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줌 (Zoom)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니어들도 이러한 온택트를 배우고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통의 도구를 쓸 줄 알아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 음소거를 해제하는 방법, 화상회의 중에 채팅으로 소통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익혀나가지. 문화센터 등을 이용해서 배우는 것도 좋고, 자녀 등 가족들에게 배울 수도 있다. 인터넷에 “화상회의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자세하게 동영상까지 나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

이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모바일에 어플을 깔거나 PC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웹캠을 설치하고 누군가를 회의에 초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다. 자주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식사 때 손가락 사용하듯이 편안한 소통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온택트 건강 라이프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택트 소통은 이제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언택트의 대명사였던 ‘홈트’도 온택트 홈트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홈트레이닝계 넷플릭스”라고 불



온택트 컬처 라이프

시니어들이 강력한 신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신한 빅데이터사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50대 고객들의 배달 앱 결제건수가, 2019년 대비 약 150% 이상 증가했다. 2030대의 증가 폭인 65%, 82%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그만큼 5060대가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맞춰 이러한 시니어층을 공략하는 온라인 채널도 증가하고 있다. 뮤직과 토크가 함께 하는 유튜브 채널 ‘최백호 낭만 is back’이나 ‘하루하루 문숙’ 등이 그것이다. 또 시니어들은 온택트 문화의 생산자로서 떠오르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홍성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어르신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인 ‘시그널 TV’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도 ‘5070 크리에이터’를 정기적으로 모집하여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실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리는 펠로톤(Peloton)에서는 운동 코칭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운동 코칭 영상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운동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강사와 실시간 피드백 소통도 할 수 있다. 저렴한 구독료로 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니 실적이 좋아서 주가도 상승했다. 국내에서도 온택트 방식을 활용한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친밀한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스포츠 클럽 ‘제일리핏케어’에서도 시니어 건강 증진을 위한 온라인 홈 트레이닝 수업을 요양원, 지자체 운영시설 등을 중심으로 무료보급하고 있다. 제일리핏케어의 온라인 홈 트레이닝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시간에 전문 트레이너와 학습자가 동시에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대면하며 운동한다. 화상회의 플랫폼 접속이 어려운 경우 유튜브 채널 ‘리핏티비’ 생중계를 보며 운동할 수 있다. 또 제일정형외과병원의 재활 프로그램을 접목해 시니어들의 척추·관절 통증 감소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EW
NORMAL



쏟아지는
남다른
시니어 라이프

③

사람처럼 움직이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로봇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다. 단순한 노동의 일부를 대신해 주던 도구의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더니 이젠 반려로봇까지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AI 로봇들이 시니어들의 건강을 돌보고 말벗이 되어주고 위급할 때 보호자 역할까지 해준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로봇들이 시니어들의 일상을 보다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Robot and AI

로봇, AI와
함께 살아가기





긴급돌봄 AI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간단한 AI는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보다 진화된 AI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다.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AI 긴급돌봄 스피커'가 빛을 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AI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동군이 보급한 AI 스피커 '아리아'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긴급 SOS 메시지로 연계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긴급돌봄 AI 스피커는 함께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하면 119 신고센터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이나 뇌출

혈은 물론 낙상 등 일상 속 응급상황 발생 시 여기저기 연락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없다. 그저 살려달라는 한마디만 AI를 향해 외치면 된다. AI의 신고를 받은 119에서 바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출동하게 되니 말이다.



통합돌봄 AI

AI 스피커의 역할은 단순히 긴급메시지 처리뿐만이 아니다. 시니어의 일상 전반을 돌봐준다. 우선 챙겨야 할 약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매일 복약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



반려로봇

AI 스피커를 넘어 최근에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식당에 가면 서빙을 대신해 주는 로봇에서부터 얼마 전에는 서울 시내 모 백화점에서 고객을 맞아 질문에 답을 해주며 매장을 직접 안내해 주는 똑똑한 로봇도 등장했다.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반려로봇이 보급되고 있다. 마포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2020년 연말부터 마포구 어르신 혹은 보호자들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려로봇은 AI 스피커처럼 말동무도 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는 등 일상적인 돌봄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목소리만 있는 스피커와 달리 실제 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 효과가 더욱 크다. 반려로봇은 보통 인형 형태 안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 스킨십이 가능한 것이다.

었는지 헛갈려서 약 봉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은 시니어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그러한 건망증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자외선 지수나 미세먼지 지수를 알려주기도 하고 비가 올 거라면 우산을 챙기라는 사랑의 잔소리도 들려준다. 심심할 때는 신청곡을 받아 음악도 들려준다. 무료하고 적적할 때면 말벗도 되어준다. 경상남도 지자체처럼 단순한 AI 통합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특유의 사투리를 인식할 수 있는 AI 스피커를 보급함으로써 더욱 소통의 효과를 높인 사례도 있다. 그만큼 소통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감상, 정보검색, 일상의 감성 대화까지 다방면으로 돌봐주면서 기본적인 소통까지 해주기 때문에 때론 남편이자 아내고, 때로는 귀여운 손주 녀석 같기도 하다. 말대꾸하거나 핀잔을 주는 법이 없으니 배우자나 자식보다 나은 면도 있다. AI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서적 케어의 효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또 AI 스피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디지털 기기에 대해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NEW
NORMAL



쏟아지는
남다른
시니어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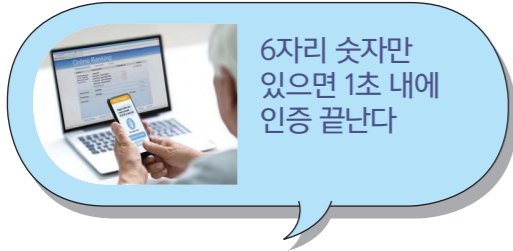
④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비울수록 풍요로운 만족과 행복감을 채울 수 있다. 은퇴 후 삶은 더욱 그렇다. 이처럼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마음까지 삶의 모든 면에서 심플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금융에도 적용되고 있다. 투자, 거래, 금융상담까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간편해지고 있다. 금융생활이 심플해질수록 은퇴 후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금융을 심플하게,
금융 미니멀리즘!

Minimal Life





6자리 숫자만 있으면 1초 내에 인증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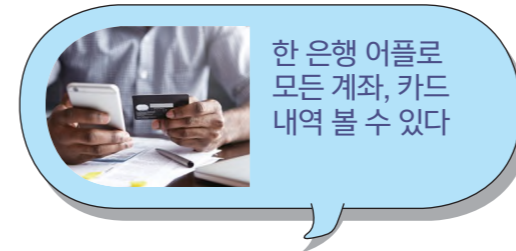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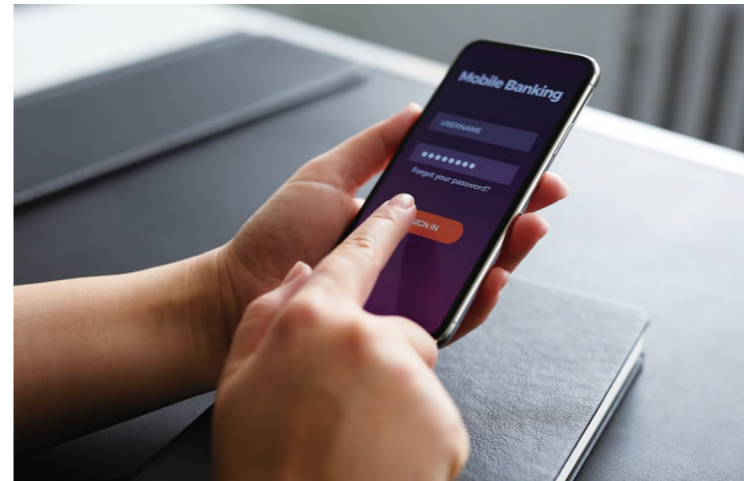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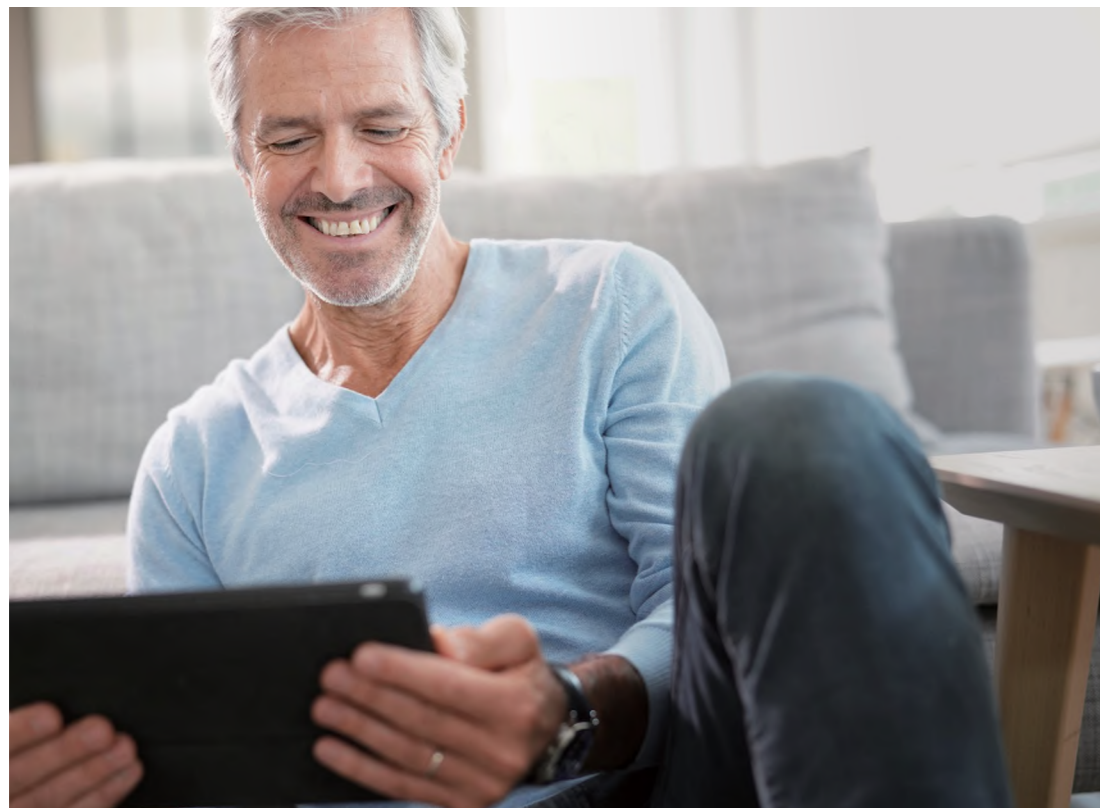
간편인증

간편인증이란 기존의 ID/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한 방식으로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간편인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이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각종 콘텐츠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데다, 비밀번호 설정도 각종 문자를 섞어서 만

들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갱신기간도 1년이라 해마다 다시 갱신하느라 번거로움이 많았다. 그러나 간편인증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효기간도 최소 2년 이상이라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줄었다.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에는 카카오페이, PASS, 뱅크사인, 네이버 인증서, 삼성 패스 등 민간업체들이 내놓는 다양한 인증서들이 있다.

인증번호도 문자와 영문 등을 포함해야 하는 복잡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6자리 숫자로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인증번호 방식뿐만 아니라 생체인식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면 지문, 홍채 등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나에게 맞는 민간업체와 인증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한 은행 어플로 모든 계좌, 카드 내역 볼 수 있다

오픈뱅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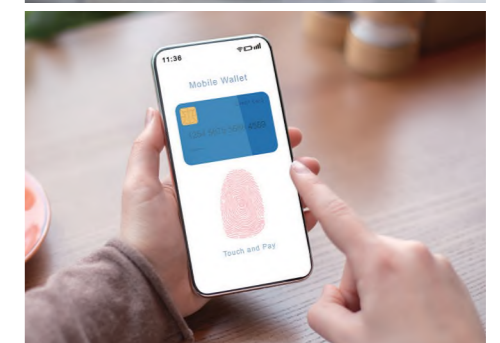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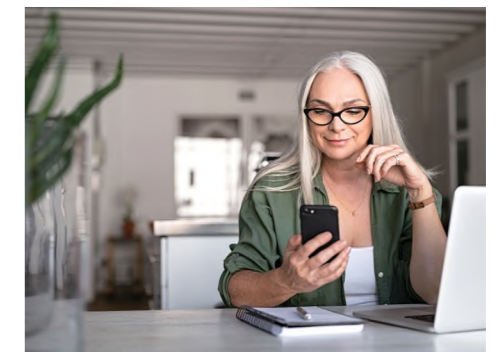
오픈뱅킹이란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금융회사 앱만으로 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과 고객데이터를 제3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이용의 장벽을 허문 것이다. 이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다가 2021년 5월 31일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을 필두로 여러 카드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한 은행 앱에서 자신의 카드 청구금액, 청구금액 결제 계좌번호 등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카드사를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로 단순해짐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 가능!

간편소액투자

금융 미니멀리즘이 투자에 있어서도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는 간편소액투자 서비스이다. 증권가 소액투자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일찌감치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대중화시켰다. 간편소액투자 방식으로 1주에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아마존, 알파벳(구글),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우량주들을 한 주 단위가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간편소액투자는 절차가 간편하고 예치금 계좌에 있는 잔액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NEW
NORMAL



썰드족의
남다른
시니어 라이프
⑤

‘나 혼자 산다’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사별, 이혼, 졸혼, 비혼 등 다양한 풍속도 속에서 혼자 사는 시니어가 더 늘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58만 9371가구를 기록하여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9.6%나 된다. 노인 인구 5명 중 1명꼴로 혼자 사는 셈이다. 싱글 시니어의 삶, 청년보다 활기차고 더블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해 보자.

Alone

싱글 시니어
라이프를
행복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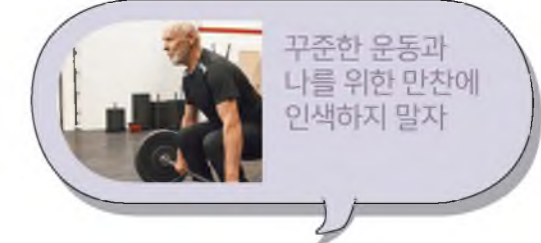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는 중년 이후 정원 가꾸기에 심취해서 풍요로운 노년을 보냈다. 소중한 나의 노년을 풍요롭게 채워줄 자신만의 아름다운 일을 찾자.

반려친구

배우자가 아니라 반려친구가 필요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만날 사람도 많고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끊어지게 마련이다. 가족이 없는 싱글의 경우 인간관계의 결핍과 고독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짠’ 관계 형성의 때이다. 직장 비즈니스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삶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할 반려친구가 필요하다. 꼭 한두 명의 개인일 필요는 없다. 동호회나 모임, 복지관 멤버, 지역의 이웃모임 등 가족을 대신할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된다. 종교단체도 좋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1명(49.7%)이 동창회, 취미활동 등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꾸준한 운동과
나를 위한 만찬에
인색하지 말자

건강

건강의 필요성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혼자 살든, 가족이 있든 건강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하물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싱글의 경우엔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싱글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아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으로 생활화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하다

일&취미

싱글 시니어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더 많게 마련이다.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화초를 기르거나, 책을 보는 등 자기만의 취미를 만들어 보자.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정원 가꾸기를 평생의 취미로 삼으면서 영감을 얻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샤의 정원」을 쓴 미국 동화작가 타



잘 먹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라고 대충 때우지 말고 영양을 생각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해나가자는 말이다.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진다.



요양원&요양시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양시설로는 크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요양원은 주로 돌봄을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치료까지 제공하는 곳으로서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비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정부가 80%를 지원한다. 간병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3~5등급은 시설급여가 있으면 등급 판정을 받아 입소 가능). 비용은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 20%이다. 요양시설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좋다. 또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등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확인하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



시니어 앱

앱만 잘 활용해도 하루하루가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의 검색창에 원하는 앱 이름을 검색하고 '설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깔린다.



| | |
|--|--|
| <p>메디픽 시니어를 위한 요양병원 상담 및 예약 서비스. 병원 유형별 정보 제공, 병상 현황 등 제공</p> | <p>돋보기 돋보기 기능 어플들을 활용해 보자. 돋보기 기능 외에도 손전등 기능, 글자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흑백반전 기능 탑재</p> |
| <p>음력달력 다양한 음력달력 어플들이 있다. 생일, 기념일 등 일정 관리, 음력 일자 정보, 세시풍속, 24절기, 손 없는 날 등 정보 제공</p> | <p>캐시워크 걸을수록 캐시가 쌓이는 만보기 앱. 100걸을 걸을 때마다 1캐시씩 보석상자가 쌓이고, 하루 최대 100캐시까지 적립</p> |
| <p>노래모음 시니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의 노래를 모아 들을 수 있는 앱</p> | <p>케어닥 간병인 인력 중개. 간병인과 환자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간병인을 소개</p> |

발행처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본점 14층(태평로 2가)
T. 02-2151-4811

발행일 2021. 8. 11.

편집위원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미래설계팀

편집·제작 (주)성우에드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층
T. 02-890-0900 / www.swadcom.co.kr

작성·교열 박은몽(작가)

*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의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

신한은행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